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첫으로 다시 하는 동학

2024. 5. 10^금 _ 5. 16^목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기스락실

주최 _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_



세계서에 전북비엔날레
WORLD SLOVEA BIENNALE OF JEOLLABUK-DO

후원 _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필묵으로 다시 만나는 동학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를 축하하며

신록이 푸르른 오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특별전 〈필묵으로 다시 만나는 동학〉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특별히 전북특별자치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백성들이 보국안민(輔國安民)·척양척왜(斥洋斥倭)라는 구호 아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4.19혁명과 최근의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우리나라 근대역사에서 가장 의미 깊은 역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런 자랑스런 역사가 서예의 진한 묵향으로 재해석되어 관람객들에게 선보입니다. 동학의 역사와 서예가 만나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하며 예술적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필묵의 감동을 보여주신 초청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뜻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10.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송 하 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를 축하하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특별전 〈필묵으로 다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위해 귀한 작품을 내어주신 서예인 여러분과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송하진 조직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 운동이자 최초의 반부패 개혁 운동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전북 출신 서예가의 손을 거쳐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한다고 하니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특색 있게 담아내고, 그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세계 최고 서예의 고장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무려 28년 동안 개최해 온 명실상부한 서예의 고장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향으로서 앞으로도 전북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산인 서예를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에 참여해 주신 서예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예 발전을 위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서예의 매력이 널리 뻗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작품을 출품해 주신 서예인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 5. 10.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를 축하하며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신순철입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학문적 연구, 전시, 교육 등 여러 방면으로 동학농민혁명의 깊이를 탐구하고 그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고결하고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서예와 서화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은 또 다른 차원의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는 첫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접근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더욱 풍성하고 깊게 퍼져 나가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팔만대장경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 및 문화적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념재단이 2015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 지 8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인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번 등재로 동학농민혁명이 인류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올해는 또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동학농민혁명에 깃들여 있는 그 정신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작가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전을 준비해주신 송하진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에는 민주, 정의, 평등,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예술적으로 승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신 순 철

필묵으로
다시 만나는 동학



目次

- | | |
|-----------------------|-----------------------|
| 10_ 강수호 康守鎬 / 석인 石人 | 25_ 김용배 金容焙 / 송계 松溪 |
| 11_ 고영삼 高永三 / 우경 牛耕 | 26_ 김은양 金恩良 / 서하 曙霞 |
| 12_ 김계천 金桂仵 / 여송 如松 | 27_ 김재룡 金在龍 / 강림 江林 |
| 13_ 김기동 金基東 / 농인 農人 | 28_ 김종대 金鐘大 / 수암 樹菴 |
| 14_ 김기영 金基泳 / 하곡 河曲 | 29_ 김진호 金鎭浩 / 이당 頤堂 |
| 15_ 김두경 金斗炯 / 아하 我河 | 30_ 김춘자 金春子 / 청곡 靑谷 |
| 16_ 김명숙 金明淑 / 소천 小泉 | 31_ 류석영 柳錫永 / 성하 惺下 |
| 17_ 김명자 金明子 / 유정 柳亭 | 32_ 문혜정 文惠貞 / 지헌 志軒 |
| 18_ 김배선 金培善 / 지석 只石 | 33_ 박원규 朴元圭 / 하하옹 何何翁 |
| 19_ 김병기 金炳基 / 심석 心石 | 34_ 박진태 朴鎭泰 / 성곡 星谷 |
| 20_ 김부식 金阜湜 / 가산 可山 | 35_ 박춘성 朴春成 / 청민 菁民 |
| 21_ 김성덕 金成德 / 신산 信山 | 36_ 박태평 朴泰坪 / 관촌 官村 |
| 22_ 김 연 金 蓮 / 소안당 少安堂 | 37_ 서명숙 徐明淑 / 초사 初思 |
| 23_ 김영이 金永伊 / 여천 汝泉 | 38_ 서홍식 徐弘植 / 하산 荷山 |
| 24_ 김용귀 金容貴 / 해석 海石 | 39_ 손복자 孫福子 / 효산 曉山 |

40_ 송동욱 宋東鈺 / 평인 平人

41_ 송영례 宋英禮 / 미우당 未愚堂

42_ 송하진 宋河珍 / 취석 翠石

43_ 송현숙 宋賢淑 / 이당 怡堂

44_ 신지훈 辛知勳 / 우공 愚公

45_ 여태명 余泰明 / 흰돌 白石

46_ 오광석 吳光錫 / 원암 元庵

47_ 유숙정 俞淑貞 / 고은 古隱

48_ 유승훈 柳昇勳 / 지암 枳菴

49_ 유지인 柳志仁 / 백산 白山

50_ 이병남 李炳南 / 옛돌 露石

51_ 이병도 李炳道 / 환빛

52_ 이 용 李 鏞 / 산민 山民

53_ 이은혁 李銀赫 / 임지당 臨池堂

54_ 이정은 李貞垠 / 금하 錦河

55_ 임성곤 林成坤 / 죽봉 竹峯

56_ 정미숙 鄭美淑 / 매원 梅園

57_ 정영숙 鄭英淑 / 미송 美松

58_ 정현숙 鄭賢淑 / 미산 侁山

59_ 조국현 曹國鉉 / 보정 寶鼎

60_ 조수현 曹首鉉 / 현담 玄潭

61_ 조완임 趙完任 / 선곡 善谷

62_ 진승환 陳昇煥 / 중재 中齋

63_ 진영근 陳永根 / 행공자 行空子

64_ 최동명 崔東明 / 청람 淸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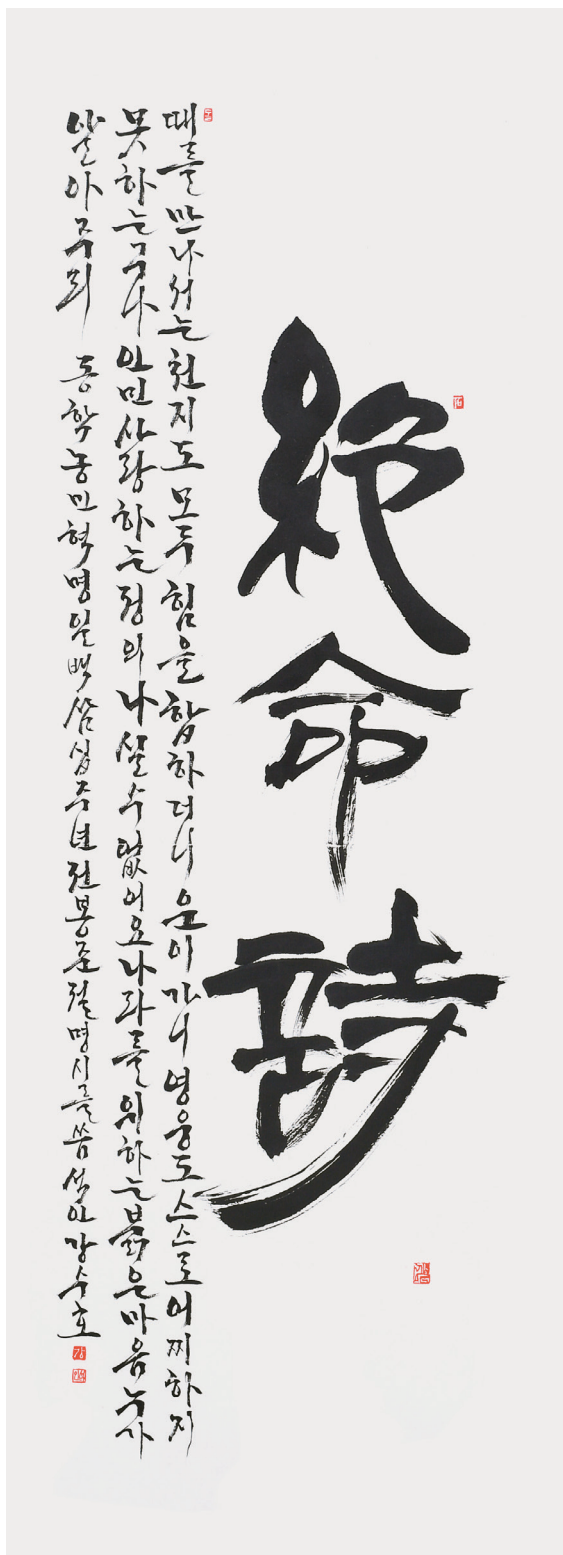
65_ 최수일 崔洙日 / 현봉 玄峰

66_ 최애순 崔愛順 / 우정 于庭

67_ 한석봉 韓石峰 / 윤산 輪山

68_ 한순옥 韓順玉 / 경인 耿仁

69_ 황인엽 黃仁葉 / 하련 夏蓮



전봉준 절명시 全琫準 絶命詩 / 45×134cm

때를 만나서는 천지도 모두 힘을 합치더니
운이 가니 영웅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구나
인민 사랑하는 정의 나 실수 없어요
나라를 위하는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리

강수호 康守鎬 / 석인 石人

1967년생 / 원광대학교 서예과 동 교육대학원 졸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행정안전부)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이사, 심사
역임 •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전북지회장 • 필문자디자인연구소, 동방서예캘리그래피연구소 대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6, 동방서예캘리그래피연구소 / 010-6645-0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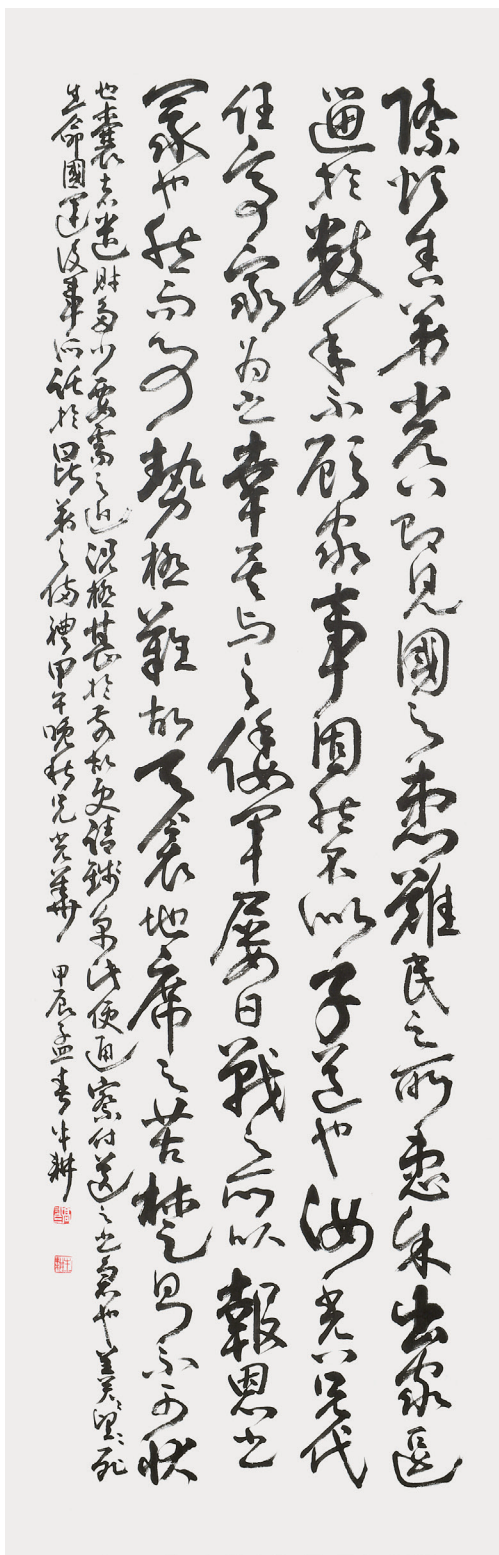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 60×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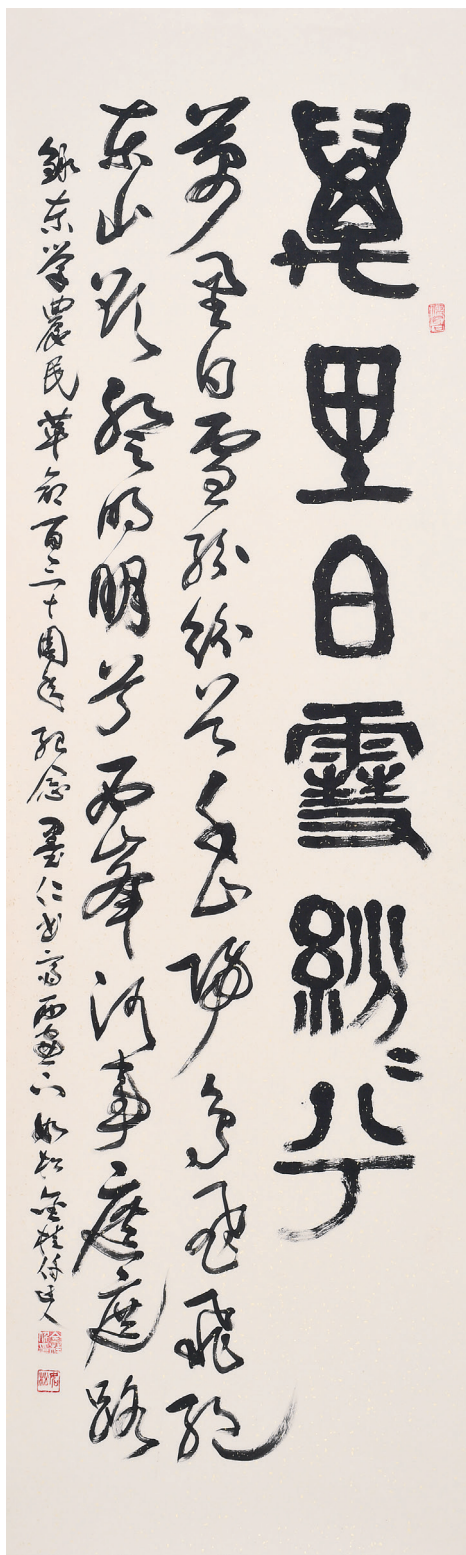
際煩舍弟光八即見國之患難民之所患
余出家逗遛於數年不顧家事固然不似子道也
汝光八兄代任齊家爲之幸矣 與之倭軍屢日戰之
所以報恩之家也 然而事勢極難故
天衾地席之苦楚則不可狀也
囊者遺財多少要需之 近況極甚於前故 更請錢帛此便
通察付送之 之急也 羹羹望望 死生命國運
後事所託於昆弟 不備禮 甲午 晚秋 兄 光華

번거로운 인사말은 접어 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왜군과 더불어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에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라네. 그러나 사세가 아주 어려워서
하늘을 이룰 삼고 땅을 자리 삼은 고초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네. (하략)

고영삼 高永三 / 우경 牛耕

1951년생 / 한국서예협회 이사, 운영위원, 심사위원, 초대작가 • 한국서예협회 전라북도지회장 역임 • 개인전 2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46, 106동 1005호 / 010-3655-0403





화결시 和訣詩 / 60×204cm

萬里白雪紛紛兮 千山歸鳥飛飛絕
東山欲登明明兮 西峯何事遮遮路

만리에 흰눈이 어지럽게 흩날림이어
천산에 돌아가는 새 날음이 끊어졌네
동산이 밝고 밝아 오르고자 함이어
서봉은 무슨 일로 길을 막고 막는고

김계천 金桂仟 / 여승 如松

1948년생 / 한국서가협회 고문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심사위원장 역임 • 한국서예연구회 고문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감사 역임
• 백제서예원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탐리길 25-4 백제서예관 / 010-4653-9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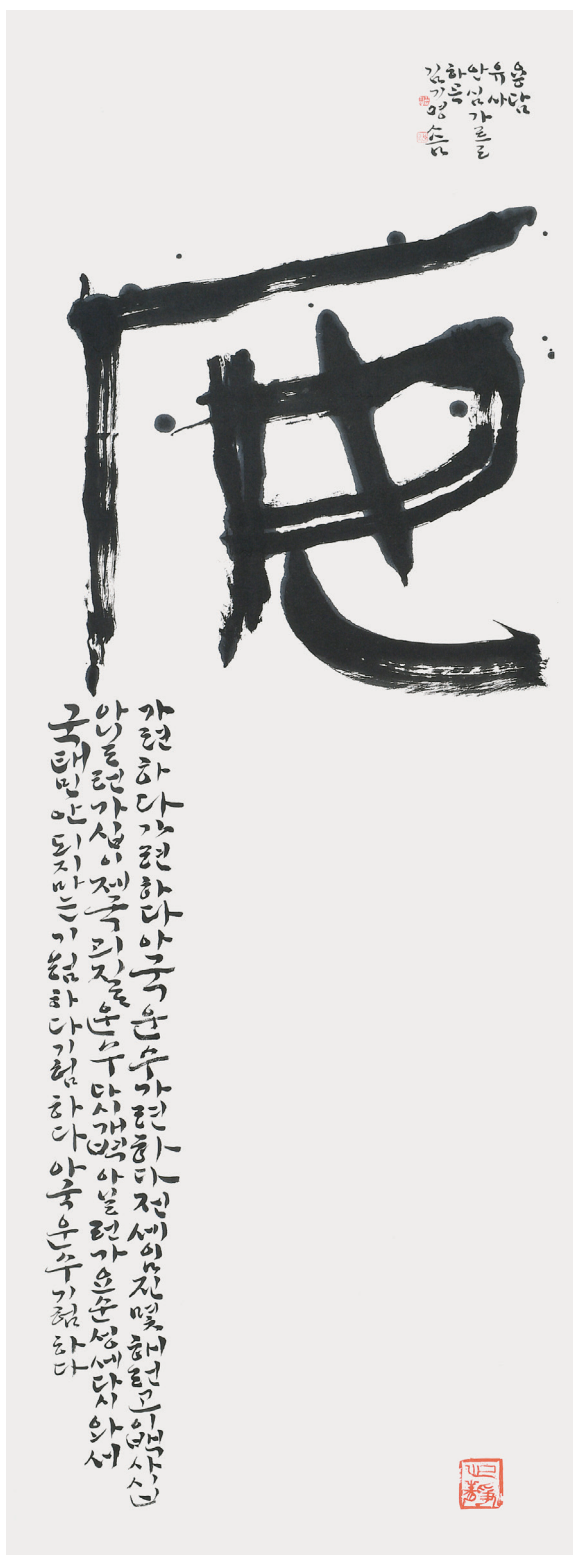
지혜 명철 智慧 明哲 / 60×160cm

智慧者懷藏智識 明哲人諸事謹慎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려니와
명철한 사람은 모든 행동을 삼가느니라

김기동 金基東 / 농인 農人

1951년생 / (사)한국서예협회 이사장 역임 • (사)서충공동대표 역임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역임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2021년 원곡서예문화상 수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31 105동 1401호 / 010-7315-2005



안심가 安心歌 / 60×180cm

가련하다 가련하다 이 나라가 가련하다. 일본이 침략해 온 임진년이 언제였나? 온 세상의 모든 나라 전염병이 가득한 건 이 세상의 다시 개혁 그 운수 아닐런가? 요순임금 평화 세상 이 땅에 다시 와서 평화로운 이 세상이 분명히 될 테지만 위태롭다 위태롭다 이 나라가 위태롭다.

김기영 金基泳 / 하곡 河曲

1970년생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2회 •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서예문화학과 졸업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명사초대전 출품 • 전)군산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약촌로 156, 2층 / 010-3316-0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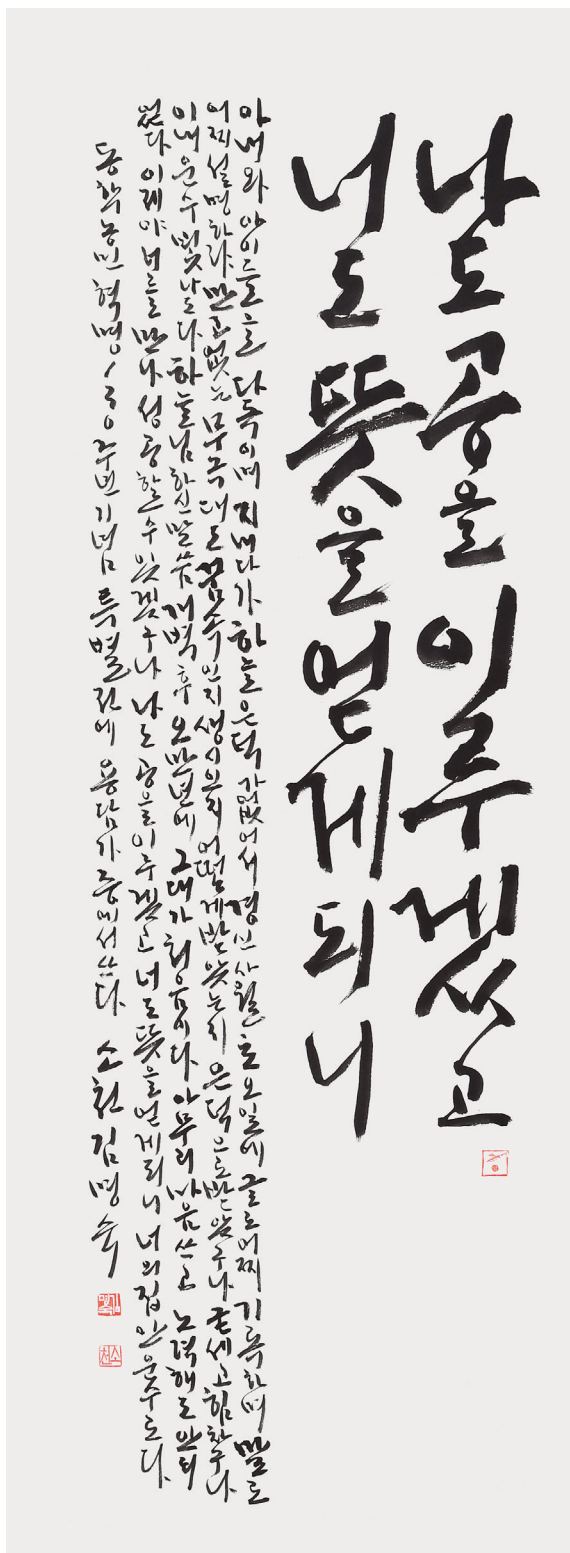


도기장존사불입 道氣長存邪不入 / 60×184cm

진리를 추구하며 살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니

김두경 金斗峒 / 아하 我河

1960년생 / 각종 공모전 입, 특선, 대상 등 수상 다수 • 개인전 21회(서울 및 전북 등) • 서예문화연구소문자향 대표, 선비문화
교육체험관 우리누리 관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청정로 1694 선비문화교육체험관 우리누리 / 010-8640-7338



용담유사-용담가 龍潭遺詞 龍潭歌 / 50×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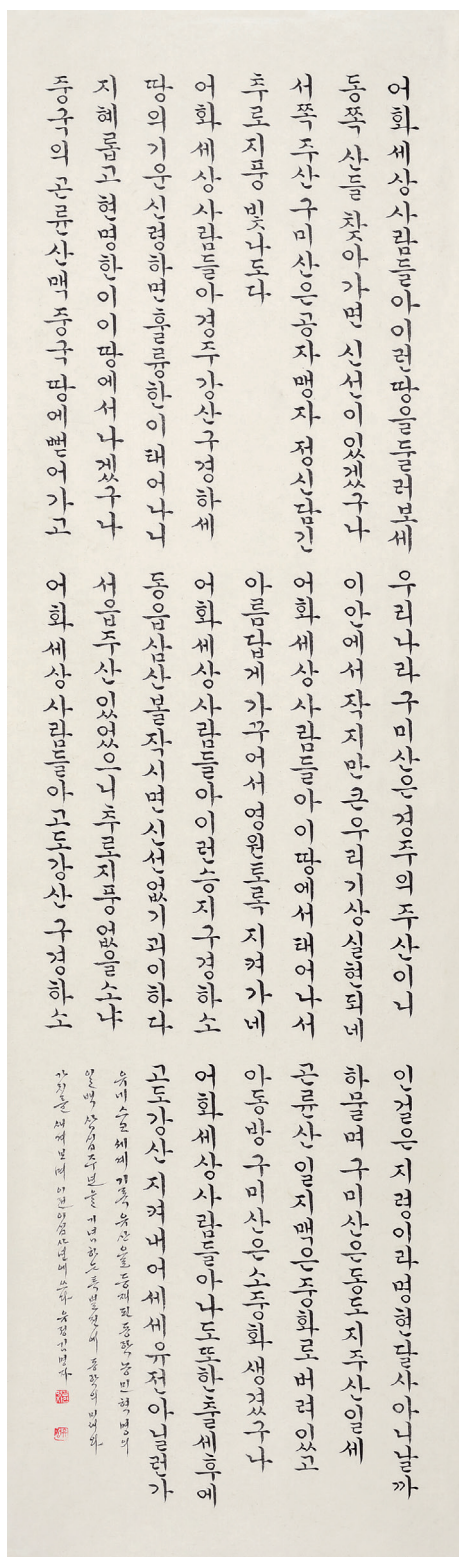
아내와 아이들을 다독이며 지내다가 하늘 은덕 가없어서 경신 사월 초오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설명하랴.

만고 없는 무극대도 꿈속인지 생시인지 어떻게 받았는지 은덕으로 받았구나.

굳세고 힘차구나 이내 운수 빛나도다.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 후 오만 년에 그대가 처음이다. 아무리 마음쓰고 노력해도 안되었다. 이제야 너를 만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공을 이루겠고 너도 뜻을 얻게 되니 너희 집안 운수구나.”

김명숙 金明淑 / 소천 小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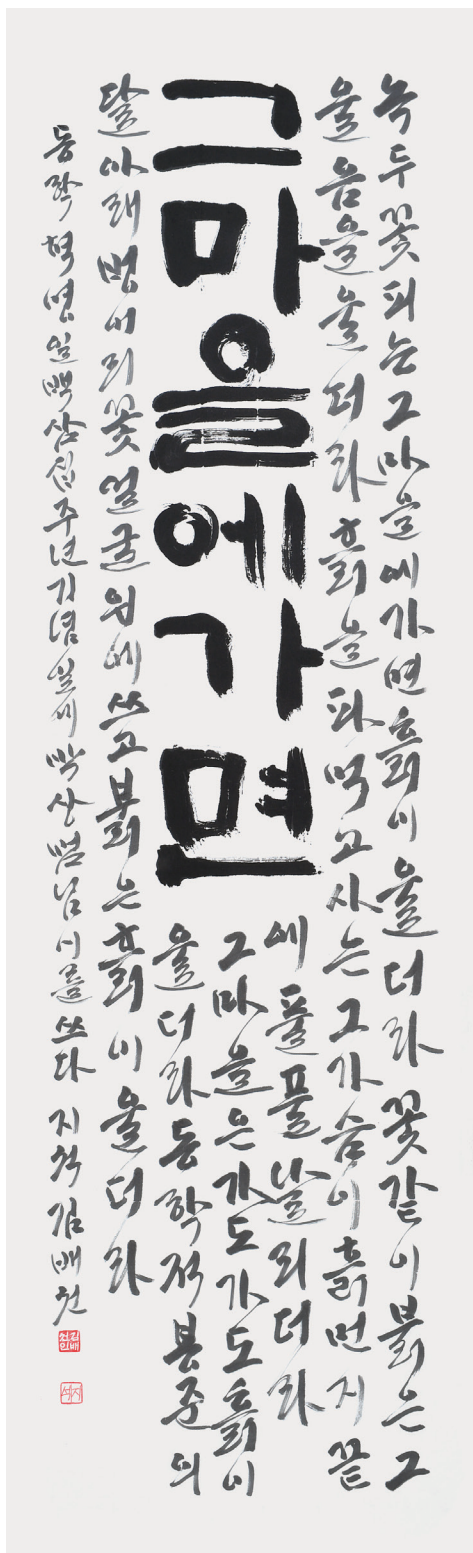
1956년생 / 한국서예협회 부이사장, 전라북도지회장 역임, 현)이사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장 역임 • 대한민국현대서예문화대전 초대작가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역임 및 출품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9-304 / 010-3656-4405



용담유사-용담가 龍潭遺詞-龍潭歌 / 50×168cm

김명자 金明子 / 유정 柳亭

1954년생 /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장 역임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역임 • 초등학교 미술교과서
단원명제, 작품수록(2015) • 성균관대 서예전문과정, 서울교육대학 미술교육과 외래교수역임 • (현)한국미술협회 서예한글진흥
부이사장 /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187, 1동 205호 / 010-2720-1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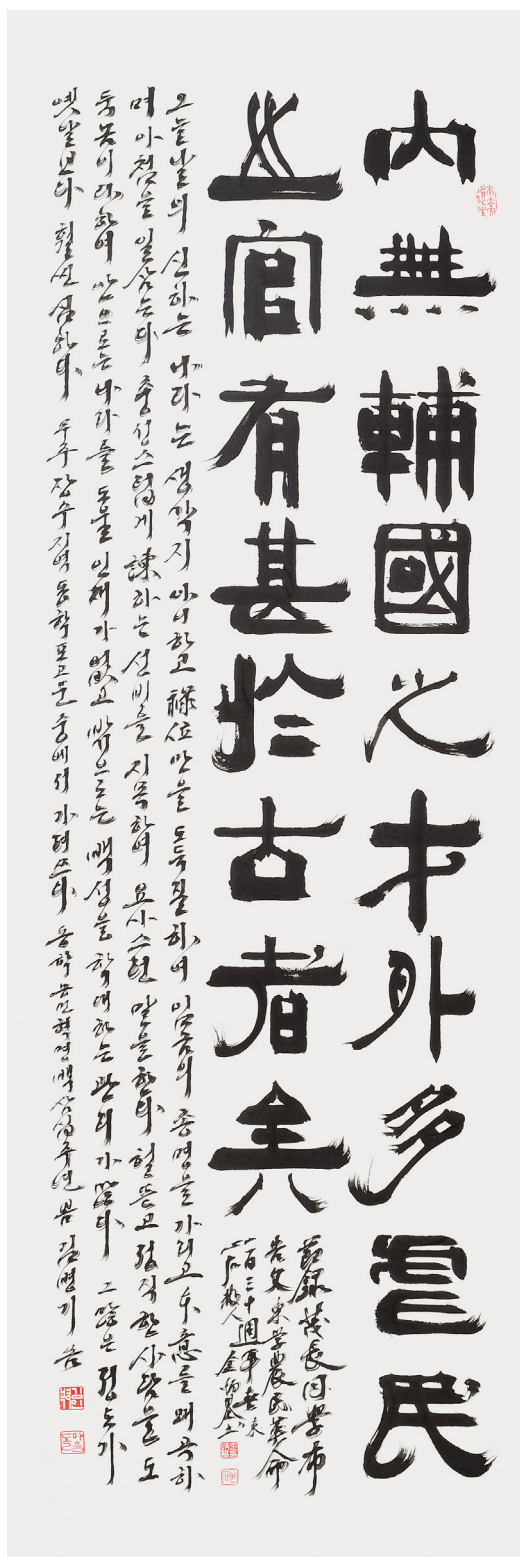


그 마을에 가면 / 60×180cm

녹두꽃 피는 그 마을에 가면
 흙이 울더라
 꽃같이 붉은 그 울음 울더라
 흙을 파먹고 사는 그 가슴이
 흙먼지 끝에 풀풀 날리더라
 그 마을은 가도 가도 흙이 울더라
 동학적 봉준의 달 아래
 병어리꽃 얼굴 위에 쓰고
 붉은 흙이 울더라

김배선 金培善 / 지석 只石

1957년생 /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 한국서가협회 이사 및 심사위원 역임 • 한국서가협회 전라북도지회장 역임 • 세계서에 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역임 • (사)모악묵연 대표이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78 / 010-9477-1233



무장동학포고문 茂長東學布告文 / 60×180cm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有甚於古者矣
안으로는 나라를 보필한 인재가 없고,
백성들을 잔학하게 대하는 관리가 많은데,
그 많은 정도가 옛날보다 훨씬 심하구나!

김병기 金炳基 / 심석 心石

1955년생 / 부친 英齋 金炯云 선생, 외종조 剛菴 宋成鏞 선생 사사 •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초대전 및 초청특강 수십 회 • 저서 30종, 번역서 2종, 논문 70여 편, 서예평론 200여 편 집필 • 한국중국문화학회, 한국서예학회 회장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 역임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과 명예교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1, 106동 902호 / 010-3883-7920



절구 絕句 / 60×20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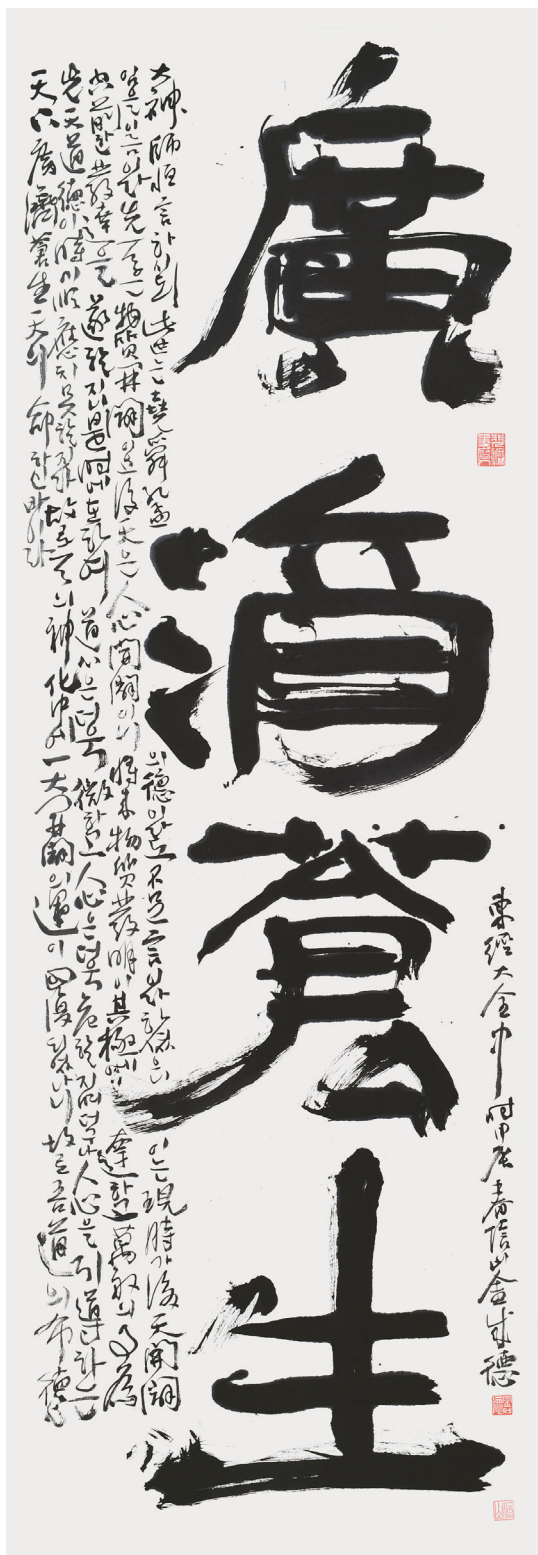
河淸鳳鳴孰能知 運自何方吾不知
平生受命千年運 聖德家承百世業
龍潭水流四海源 龜岳春回一世花

황하의 흙탕물이 맑아지고, 봉황이 나타나서 울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 사실을 알리오? 나의 운수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나도 모른다네.

한평생 다 바쳐서 얻은 명(命), 이제 천년 운세를 받았네. 성덕(聖德)의 가문에서 태어난 나(우리)는 백 세에 뻗칠 공업(功業)을 이어갈 수밖에 없으리. 용담의 물은 흘러 흘러 사해를 이루고, 구미산에 봄이 돌아오니 온 세상에 꽃 천지рода.

김부식 金阜湜 / 가산 可山

1962년생 /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원광대학교 서예학과 강사 역임·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관장, 가산서예연구실 주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아리랑로 13-1 한겨레문화센터2층 가산서예실(연구실) / 010-5654-5759



광제창생 廣濟蒼生 / 60×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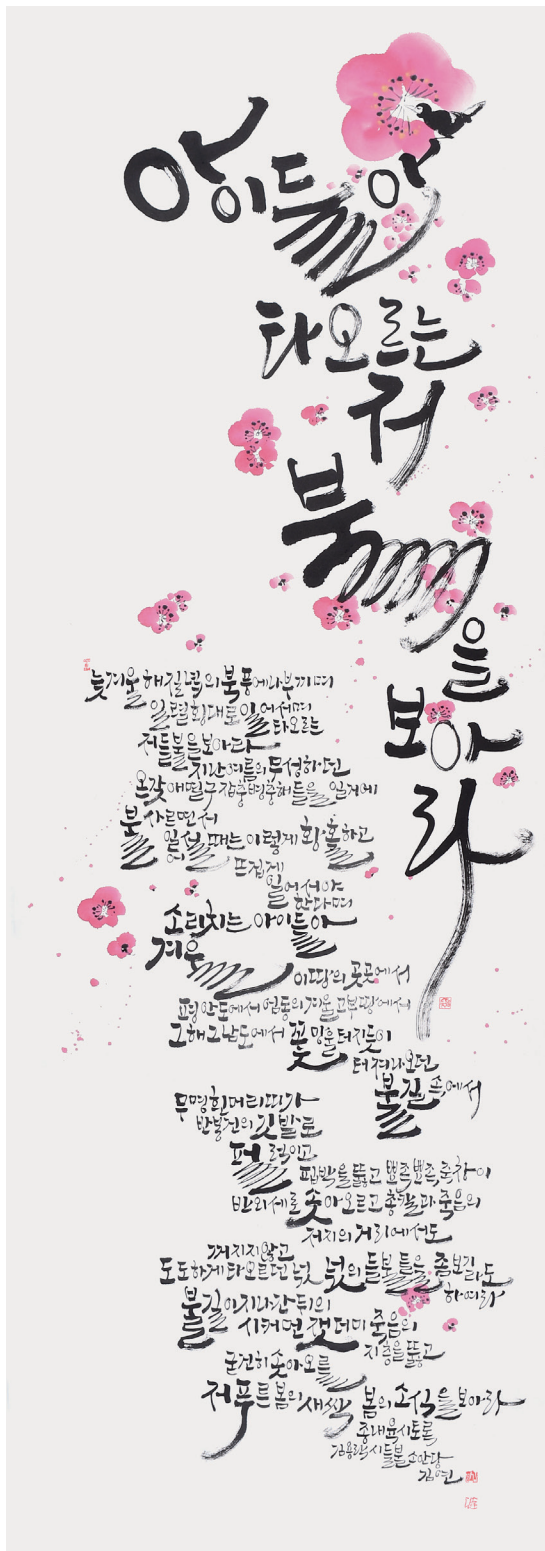
널리 백성을 구제한다.

大神師 恒言하시되 此世는 堯舜孔孟의 德이라도 不足言이라 하셨으니 이는 現時가 後天開闢임을 이름이라.

先天은 物質開闢이요 後天은 人心開闢이니, 將來 物質發明이 其極에 達하고 萬般의 事爲 空前한 發達을 遂할지니, 是時에 在하여 道心은 더욱 微하고 人心은 더욱 危할지며, 더구나 人心을 引導하는 先天道德이 時에 順應치 못할지라. 故로 天의 神化中에 一大開闢의 運이 回復되었나니, 故로 吾道의 布德天下 廣濟蒼生 天의 命하신 바니라.

김성덕 金成德 / 신산 信山

1965년생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및 심사위원 역임 • 원광대학교 서예과 강사 역임 • 일중서예우수작가상 • 한국전각협회 부회장 • 한국미술협회 이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19길 11, 206호 신산서예전각연구원 / 010-3654-4248



아이들아 타오르는 저 불을 보아라 / 60×180cm

김연 金蓮 / 소안당 少安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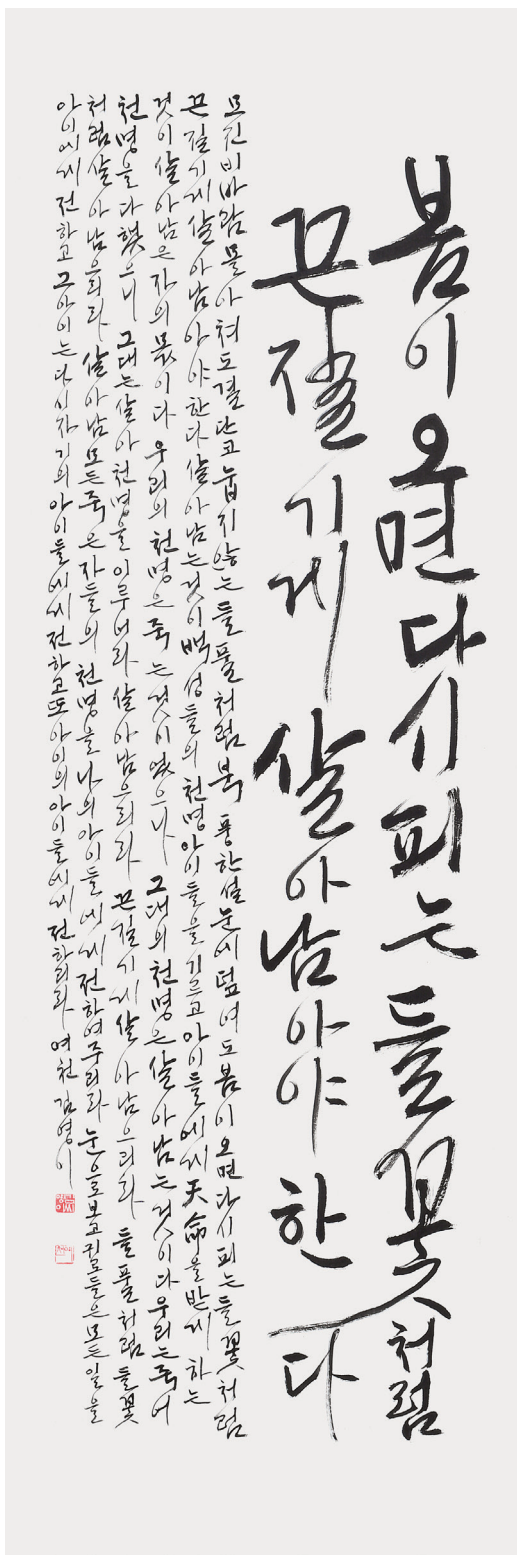
1972년생 / 원광대 서예학과 졸업 • 동대학원 박사수료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개인전 14회 •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서예문화학과 출강, 전북대 평생교육원 강사 • 서연회, 한국문인화연구회, 마음그림, 강암연묵회, 한국청년서단 회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송1길 19 401호 김연서예학원 / 010-4657-6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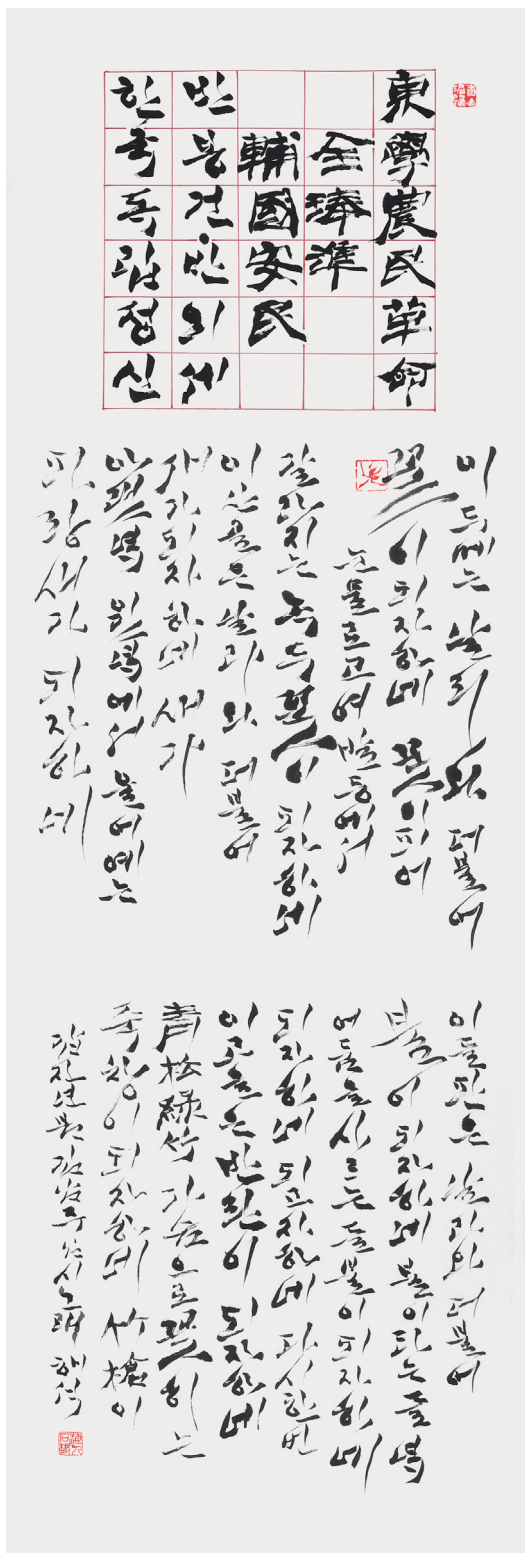
천명 天命 / 70×200cm

모진 비바람 몰아쳐도 결단코 놓지 않는 들꽃처럼 북풍 한설 눈에 덮여도 봄이오면 다시 피는 들꽃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는 것이 백성들의 천명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에게 천명을 받게 하는 것이 살아 남은자의 몫이다.
우리의 천명은 죽는 것이었으나 그대의 천명은 살아남는 것이다. 우리는 죽어 천명을 다했으니 그대는 살아 천명을 이루어라. 살아 남으리라. 끈질기게 살아 남으리라.
들꽃처럼 들꽃처럼 살아남으리라. 살아남아 모든 죽은자들의 천명을 나의 아이들에게 전하여 주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모든 일을 아이에게 전하고 그 아이는 다시 자기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또 아이의 아이들에게 전하리라.

김영이 金永伊 / 여천 汝泉

1960년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여성분과위원 역임 • 인천광역시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 운영위원 • 학생서예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현)부지회장 •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 한국문화예술능력평가원 실용서예마스터, 초대작가 • 인천광역시 국제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자문위원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출품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175, 103동 1803호 / 010-6742-8811





김남주 시 〈노래〉 / 60×188cm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녘 윗녘에서 울어에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죽 가슴으로 꽃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

김용귀 金容貴 / 해석 海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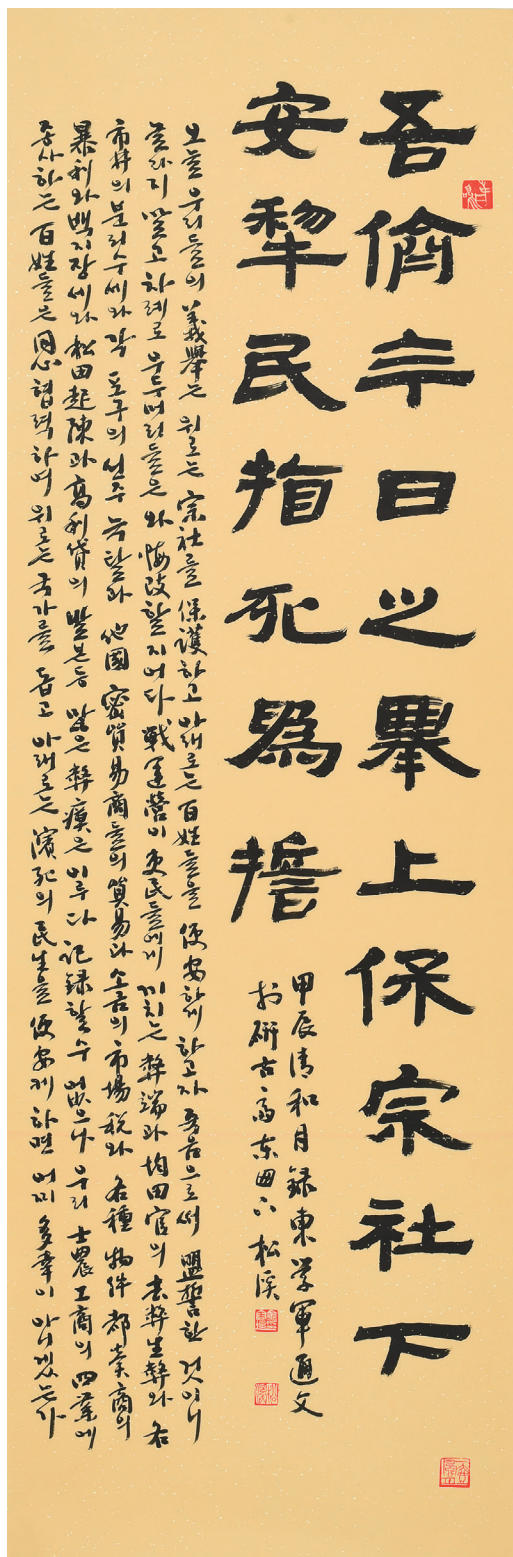
1955년생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개인전 2회(靑山獨歸 2022, 禪雲寺 난 향기 2014)
• 편저서(한글서예대전, 현대한글서체대전, 한글민체대전, 난화묵향) • 한글날 대한민국문화포장 수상(2006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5-15, 116동 1602호 / 010-4464-9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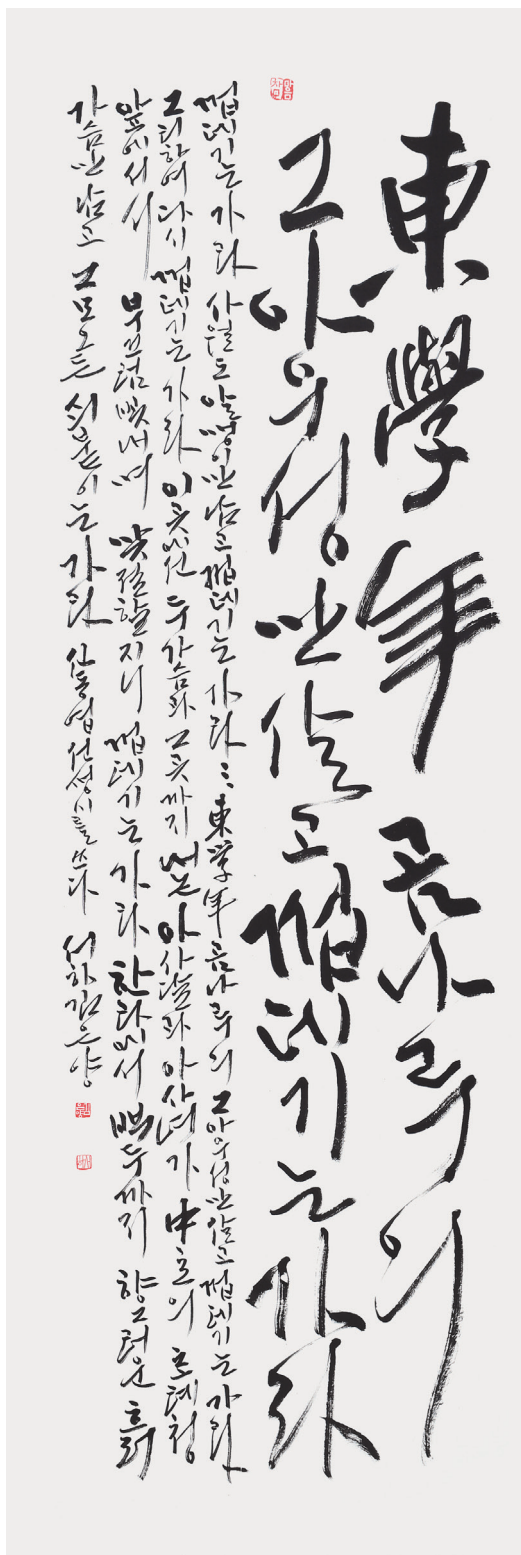
전봉준 동학군통문 全琫準 東學軍通文 / 60×186cm

吾儕今日之舉 上保宗社 下安黎民 指死爲誓
 오늘 우리들의 義舉는 위로는 宗社를 保護하고, 아래로는
 百姓들을 便安하게 하고자 죽음으로써 盟誓한 것이니,
 놀라지 말고 차례로 우두머리들은 와 悔改 할지이다.
 戰運營이 吏民들에게 끼치는 弊端과 均田官의 去弊生弊와
 각 市井의 分錢收稅와 각 浦口의 船主 勒索과 他國
 密貿易商들의 貿易과 소금의 市場 稅와 各種 物件
 都賣商의 暴利와 白地徵稅와 松田起陳과 高利貸의 拔本등
 많은 弊端은 이루 다 記錄할 수 없으나, 우리 士農工商의
 四業에 종사하는 百姓들은 同心 協力하여 위로는 國家를
 돕고 아래로는 濱死의 民生을 便安케 하면 어찌 多幸이
 아니겠는가!

김용배 金容培 / 송계 松溪

1952년생 / 성균관대학교유학대학원 수료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일본국제박람회기념서예초대전 출품
 • 대북기풍시 국제서예초대전 출품 • 심화명등전, 화양연화전등, 개인전 5회 • 한국문인화협회 이사, 강암연묵회 이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9-16 송계서예(연고재) / 010-9879-7379





깍데기는 가라 / 60×180cm

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깍데기는 가라 깍데기는 가라
 東學年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당 아사녀가
 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김은양 金恩良 / 서하 曙霞

1956년생 /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 심사 역임 •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 수상 • 한국서예협회 전북지회 초대작가, 이사, 심사
 위원 • 김생서예대전 대상, 초대작가, 운영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1로 71, 806동 503호 / 010-3671-8215



양호창의 兩湖倡義 / 60×180cm

김재룡 金在龍 / 강림 江林

1956년생 / 중국 산둥성 노동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상임이사 • 현묵회 회장 • 문학박사 • 개인전, 중국상해 1회, 국내 4회 이외 회원전 다수 / 익산시 무왕로 10길 20, 6동 202호 / 010-3683-7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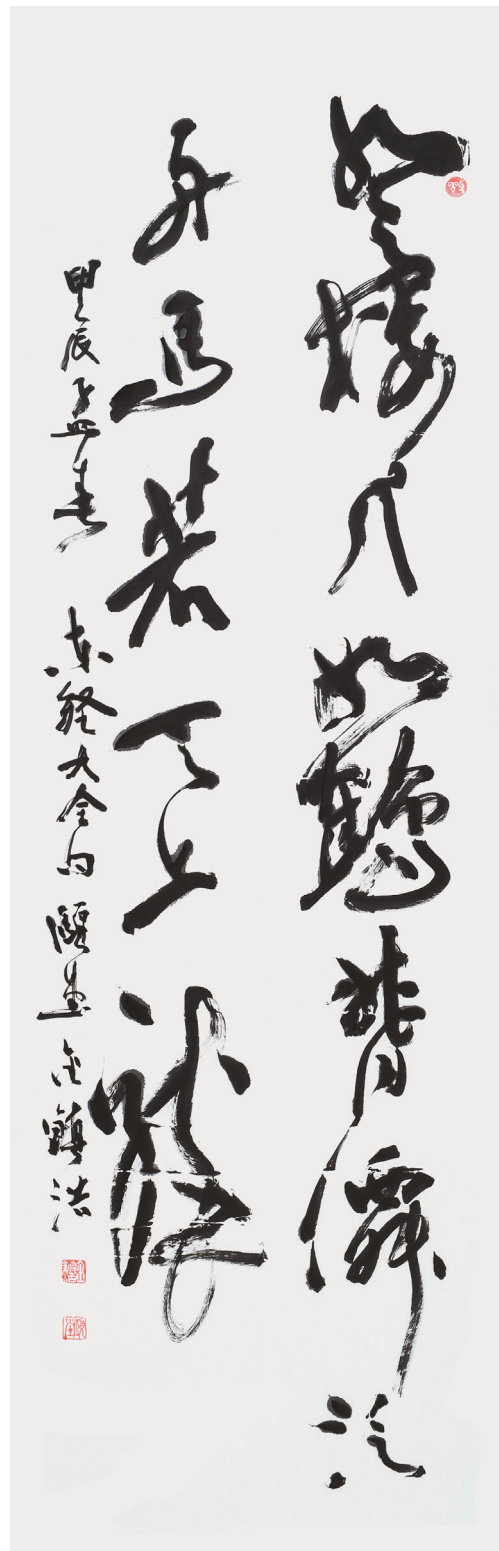


유무상자 有無相資 / 60×180cm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서로 의지하고 나눈다. 동학농민혁명 초기 유무상자(有無相資)를 실천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김종대 金鐘大 / 수암 樹菴

1958년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현대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 강암서예대전 초대작가 • 강암 연묵회, 진묵회, 수묵동연회 회원 • 건지서예원 원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27, 상가2동 202호 건지서예 / 010-4635-6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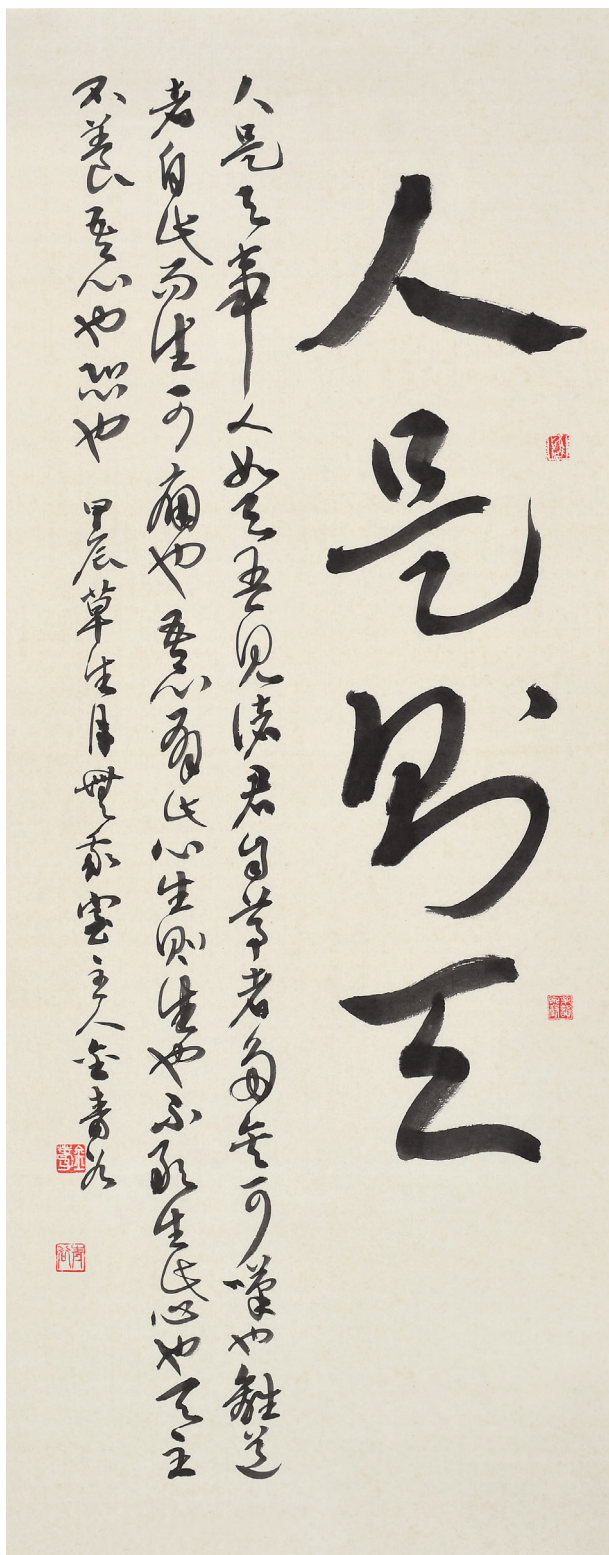
화결시 중 和訣詩 中 / 60×188cm

登樓人如鶴背仙 泛舟馬若天上龍

누각에 오른 사람은 학의 등에 신선 같고
떠난 배에 있는 말은 한울 위에 용 같아라

김진호 金鎮浩 / 이당 頤堂

1961년생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이사, 심사위원 역임 • 전라북도미술협회 초대작가 • (사)아트워크 이사 • 전북미술상 • 이당서려 주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26 2층 이당서려 / 010-5818-2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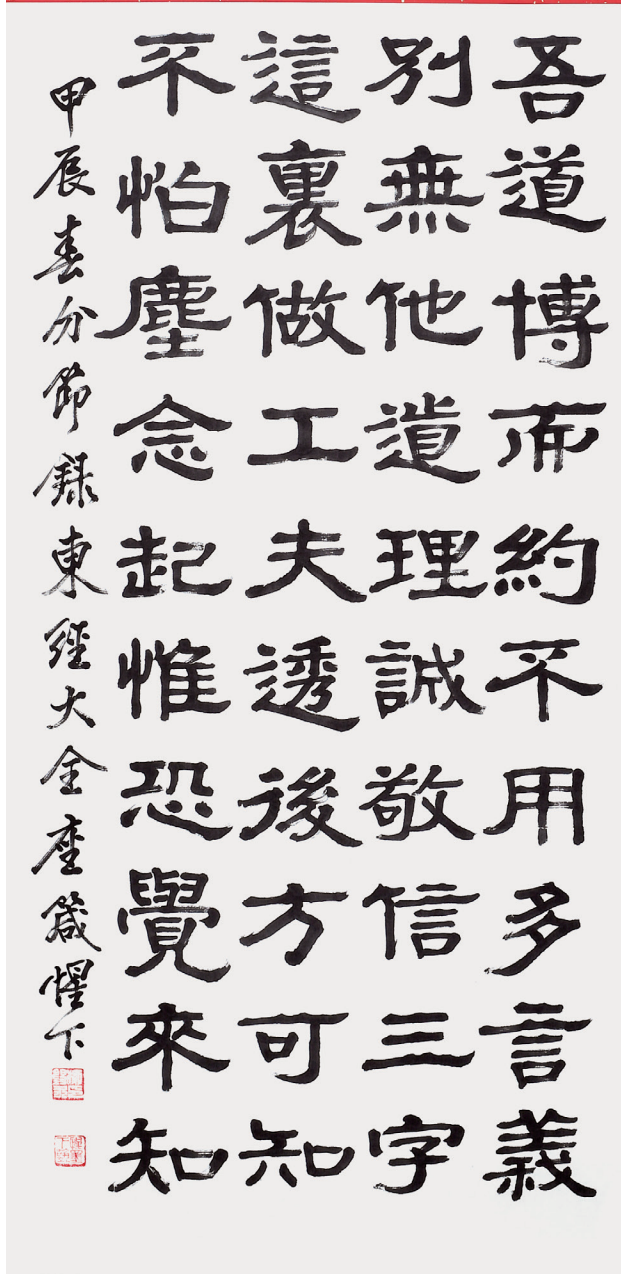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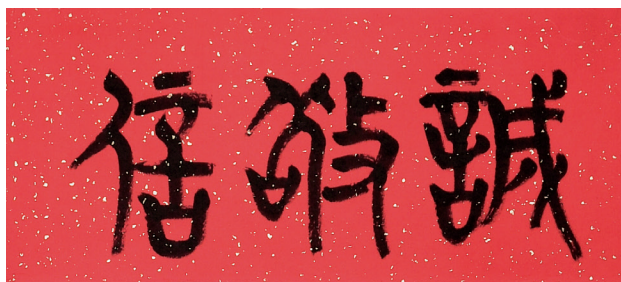
인시즉천 人是則天 / 55×136cm

人是則天 人是天 事人如天 吾見諸君 自尊者多矣 可嘆也 離道者自此而生 可痛也 吾亦有此心 生則生也 不敢生此心也 天主不養吾心也 恐也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 내 제군들을 보니 스스로 잘난체하는 자가 많으니 한심한 일이고,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이래서 생기니 슬픈 일이다. 나도 또한 이런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마음을 감히 내지 않는 것은 한울님을 내 마음에 양하지 못할까 두려워 함이다.

김춘자 金春子 / 청곡 靑谷

1956년 생 / 성균관대학교 동양미술 철학박사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 한국서예가협회 수석부회장 • 개인전6회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137길 16-9, 103동 201호 / 010-221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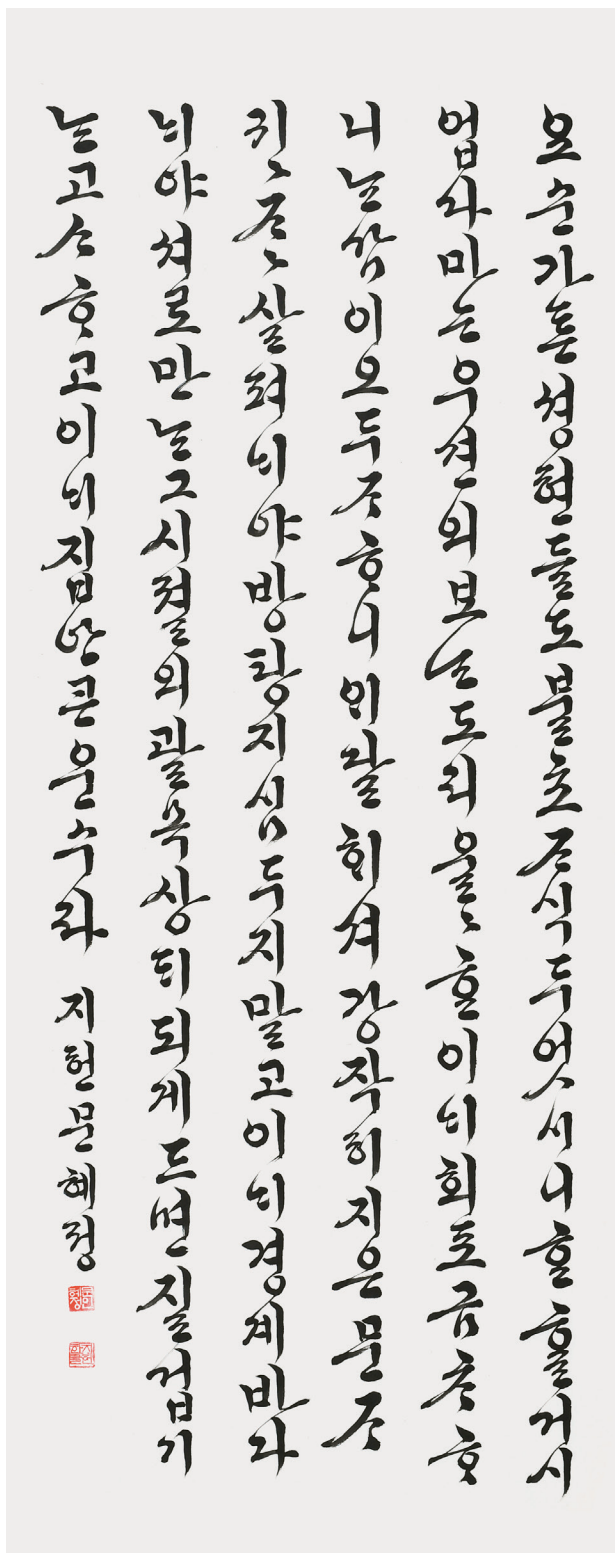
동경대전 좌장 東經大全 座箴 / 50×120cm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這裏做工夫 透後方可知
不怕塵念起 惟恐覺來知

나의 도는 너르고 너르지만 간략하기 그지 없다. 그래서 많은 말이나 의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다양한 도리가 있지만, 나의 도는 그런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 경, 신 이 세 글자에 있다. 이 세 글자에 집중해서 공부해 들어가라. 투철하게 공부한 후에 비로소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세속의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말지어다. 오로지 깨달아 참된 앞에 도달하는 것만 진지하게 생각하라.

류석영 柳錫永 / 성하 惺下

1947년생 / 전주중앙서예개원(1975년)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역임 •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자문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1, 중앙서예원 / 010-5325-9736



용담유사-교훈가 龍潭遺詞-敎訓歌 /

57×135cm

요순 같은 성현들도 불초자식 두었으니 원망할 것 없지마는 우울한 이내 마음 외면하기 쉽지 않고 그냥 두면 애달파서 간신히 편지쓰니 한 자 한 자 읽어 보고 방탕한 맘 갖지 말고 나의 훈계 받아들여 서로 만날 그 시절에 놀랍도록 성장하면 즐거운 건 당연하고 우리 동학 큰 복이라.

문혜정 文惠貞 / 지현 志軒

1972년생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대한민국의사대전 입선 및 전라북도사예대전 초대작가 • 세계사에전북 비엔날레 작품 출품 • 청도국제서예비엔날레 작품 출품 및 논문 발표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서예 관련 논문 게재 다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여의동 혁신로 655, 101동 102호 / 010-2427-7249



보국안민 輔國安民 / 74×72cm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박원규 朴元圭 / 하하옹 何何翁

1947년생 / 개인전 10회 • 작품집 30권 • 『馬王堆帛書老子書臨書本』(미술문화원, 1985) 출판 • 『박원규 서예를 말하다』(한길사, 2010) 출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22 미성상가 3층 석곡실 / 010-5271-8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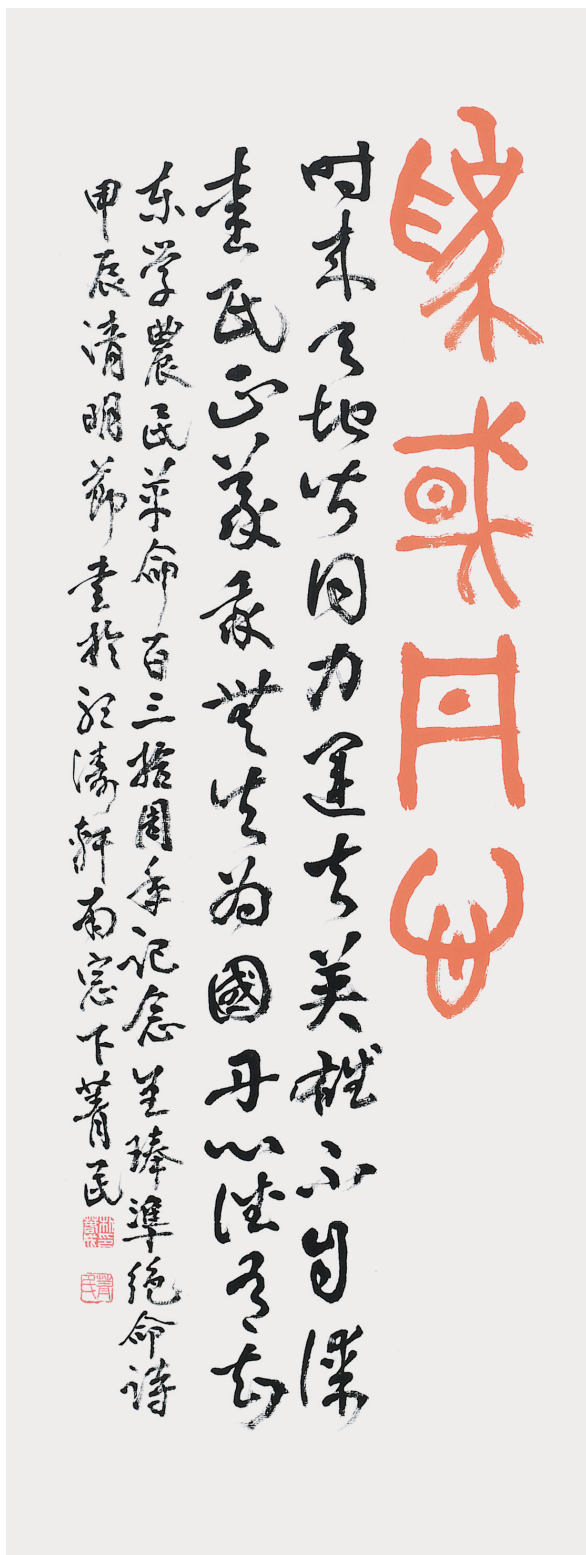


녹죽 綠竹 / 60×180cm

泰山之峙峙兮 夫子登臨何時 清風之徐徐兮 五柳先生覺非
清江之浩浩兮 蘇子與客風流 池塘之深深兮 是濂溪之所樂
綠竹之綠綠兮 爲君子之非俗 青松之青青兮 洗耳處士爲友
明月之明明兮 日太白之所抱 耳得爲聲目色 盡是閑談古今
태산이 높고 높음이며, 부자께서 오른 것이 어느 때인가.
맑은 바람이 서서히 불음이며, 오류선생이 잘못 깨달음이다.
맑은 강의 넓고 넓음이며 소동파와 손님의 풍류로다.
푸른 대의 푸르고 푸름이며, 군자의 속되지 않음이로다.
푸른 솔의 푸르고 푸름이며, 귀 씻던 처사의 벗이로다.
맑은 달의 밝고 밝음이며 이태백이 안으려던 바요.
귀에 들리는 것은 소리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빛이니,
다 이것이 한가로이 예와 이제를 말함이라.

박진태 朴鎭泰 / 성곡 星谷

1946년생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심사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역임 • 대한민국문인화전람회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 공무원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및 한문 감수위원 역임 • 한국서가협회 이사장 및 명예이사장 역임 • (현)한국서가협회 고문, 성곡서예학원 원장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25-1 대영빌딩 2층, 성곡서실 / 010-5328-8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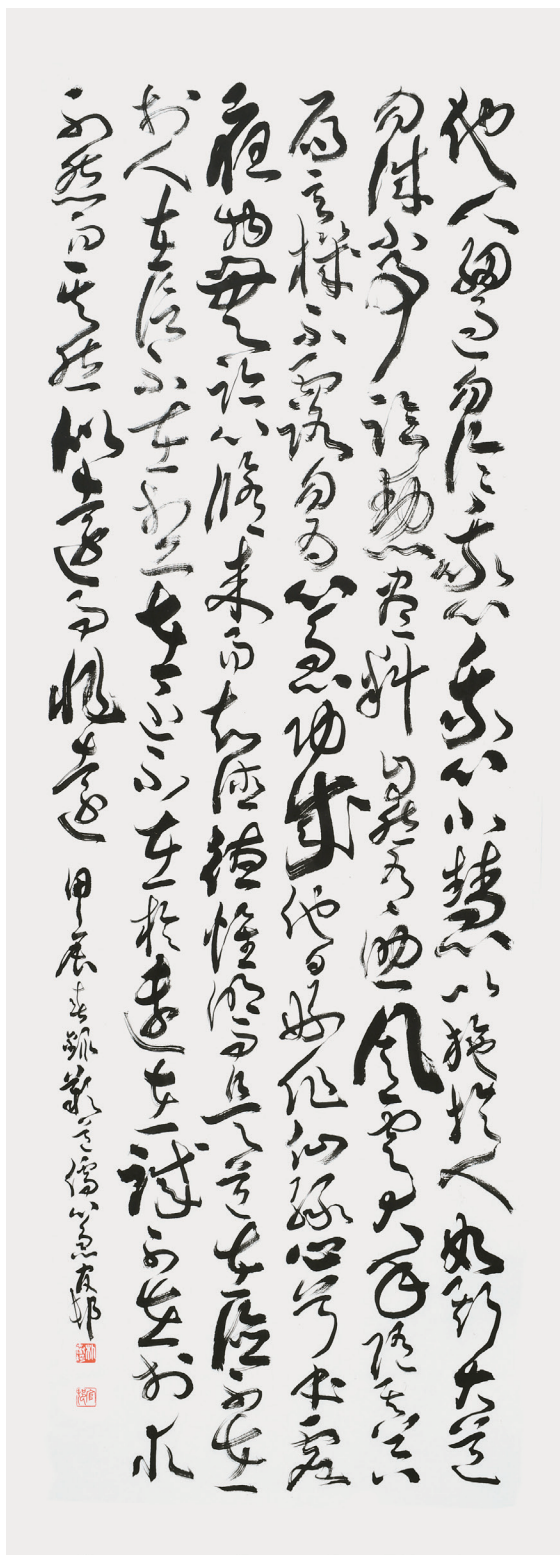
절명시 絶命詩 / 35×88cm

時來天地皆同力 運去英雄不自謀
愛民正義我無失 爲國丹心誰有知

때를 만나서는 천지도 모두 힘을 합하더니
운이 가니 영웅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구나
인민 사랑하는 정의 나 실수 없어요
나를 위하는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리

박춘성 朴春成 / 청민 菁民

1945년생 / 한국미술협회 초대작가, 이사 역임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 전라북도미술대전 서예 부문 운영, 심사위원 역임, 초대작가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학과 강사 역임 •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나운1길30, 102동 1308호 / 010-7676-5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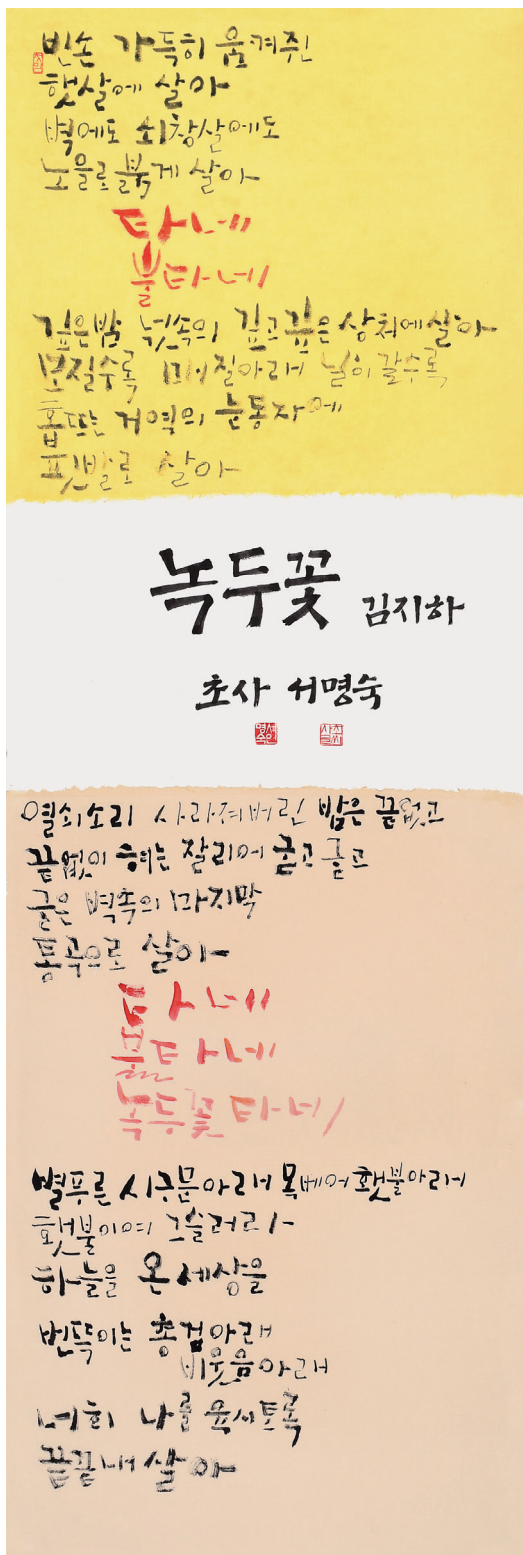
단도유심급 歎道儒心急 / 60×180cm

他人細過 勿論我心 我心小慧 以施於人 如斯大道
勿誠小事 臨動盡料 自然有助 風雲大手 隨其器局
玄機不露 勿爲心急 功成他日 好作仙緣 心兮本虛
應物無迹 心修來而知德 德惟明而是道 在德不在於人
在信不在於工 在近不在於遠 在誠不在於求 不然而其然
似遠而非遠

도반들의 작은 허물은 크게 마음 쓰지 맙시다.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온 정성을 다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중략) 지금 여기의 삶으로 정성
들이는 것이지 먼 하늘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럴까 싶은不然이면서 너무나
당연한 其然이고 멀 것 같은데 멀지 않습니다.

박태평 朴泰坪 / 관촌 官村

1964년생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 및 운영위원 역임·일중기념사업회 우수작가 수상 및 초대전·경인미술관 개인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62길5, 이소현서예실 / 010-9855-3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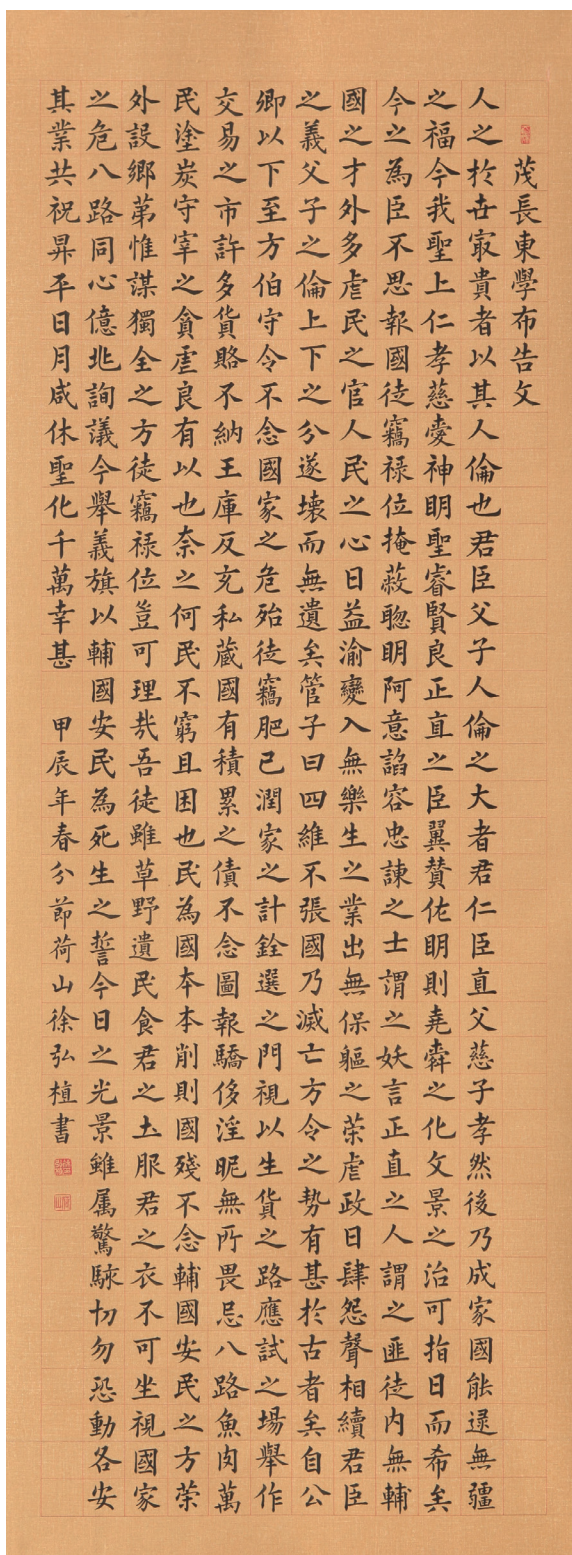


녹두꽃 / 54×175cm

빈손 가득히 움켜쥔 햇살에 살아 벽에도 쇠창살에도
노을로 붉게 살아 타네 불타네. 깊은 밤 뉘 속의 깊고
깊은 상처에 살아 모질수록 매질 아래 날이 갈수록
흠뜨는 거역의 눈동자에 핏발로 살아 열쇠 소리 사라져
버린 밤은 끝없고 끝없이 흐르는 찰리에 굳고 굳고 굳은
벽 속의 마지막 통곡으로 살아 타네 불타네. 녹두꽃
타네 별 푸른 시냇물 아래 목 베어 햇빛 아래 햇빛이여
그슬러라. 하늘을 온 세상을 번쩍이는 총검 아래
비웃음 아래 너희, 나를 육시토록 끝끝내 살아.

서명숙 徐明淑 / 초사 初思

1956년생 / 한국서가협회 이사 역임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심사위원 역임 • 서예연구회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현)한국
서가협회 전북지회장 • (현)여의동 주민자치센터, 큰나루복지관, 덕진 노인복지관 강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10,
601동 702호 / 010-9877-6171



무장동학포고문 茂長東學布告文 / 55×135cm

서홍식 徐弘植 / 하산 荷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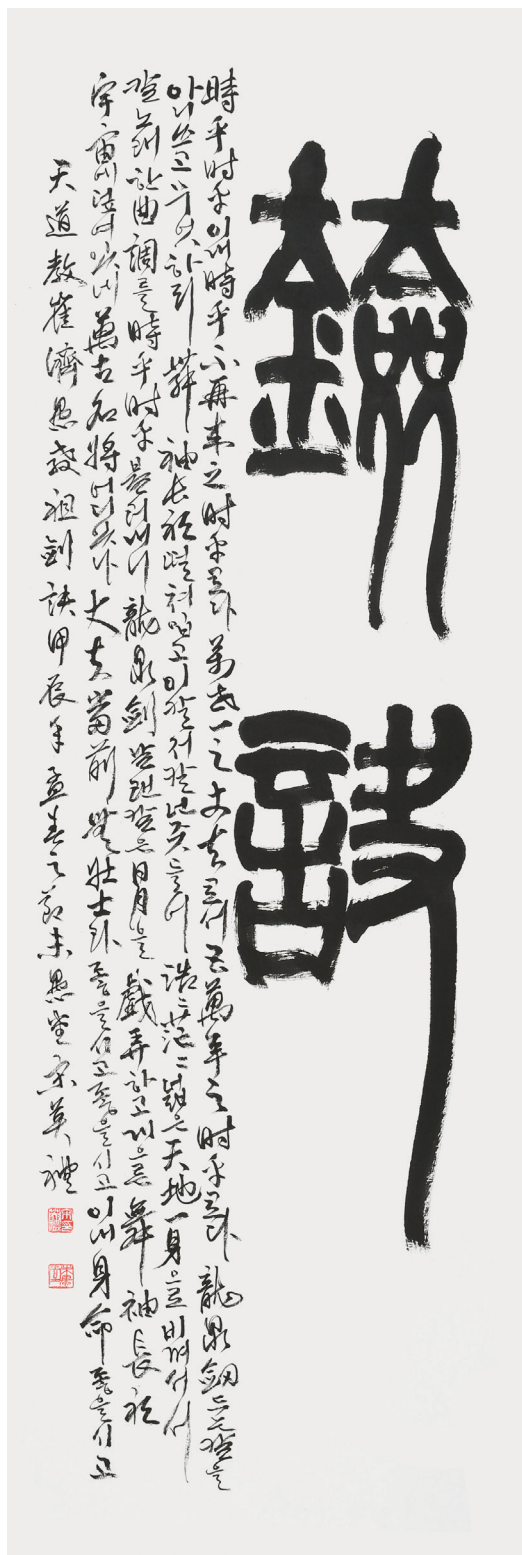
1960년생 / 한국서도협회 전북지회장·국제서법예술연합 호남지회 부회장 겸 전북지부장·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겸 집행위원·원곡서예문화상 수상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04 / 010-3682-2060



여천 如天 / 70×130cm

송동욱 宋東鉦 / 평인 平人

1957년생 / 개인전 및 초대전 17회 • 현)한국전각협회 부회장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출품 다수 • 2023파리 카르셀 뒤 루브르 아트 페어(파리 루브르 박물관) • 한국 인도 수교50주년 아티스트캠프 Tagore and Nature-A River (2023)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55길 44-7, 3층 / 010-5261-9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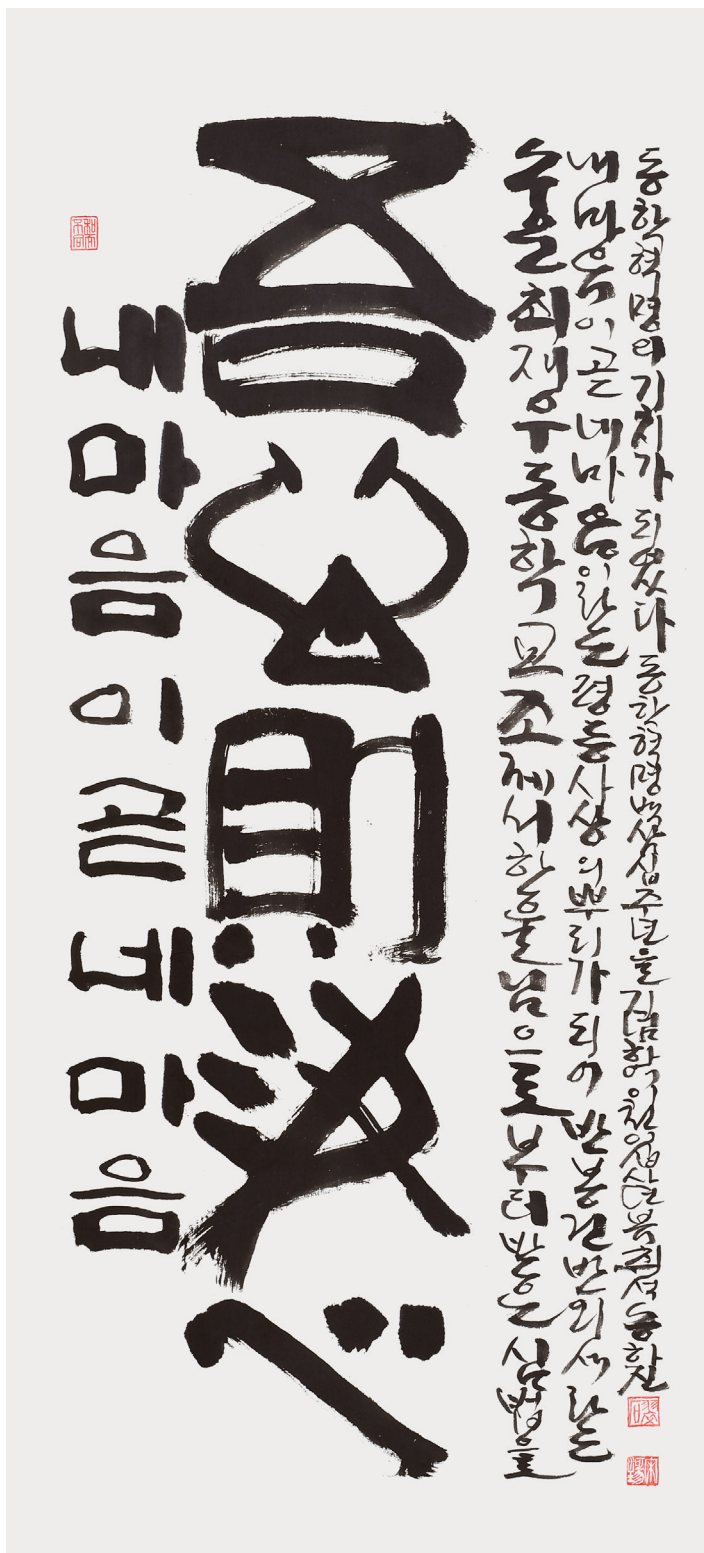


검결 劍訣 / 60×180cm

시호(時乎) 시호(時乎) 때가 왔네 다시 못 올 때가 왔네.
만세 한번 장부로서 오만 년의 때로구나.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 하리.
무수장삼 펼쳐입고 이 칼 저 칼 넌곳 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한 몸으로 비껴서서,
칼 노래 한 곡조를 시호(時乎) 시호(時乎) 불러보니,
용천검 날랜 칼은 해와 달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 있네.
만고명장 어디 있나 내 앞에선 누구 없네.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 좋을시고.

송영례 宋英禮 / 미우당 未愚堂

1947년생 / 정읍사전국서화대전 초대작가 •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정읍시선비문화관 서예반 강사 • 한국서예협회 전라북도지회 이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남북로 62-4 / 010-9234-3630



오심즉여심 吾心則汝心 /
70×135cm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소운 최재우 동학 교조께서 한울님
으로부터 받은 心法으로,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평등사상의 뿌리가
되어 반봉건 반외세라는 동학
혁명의 기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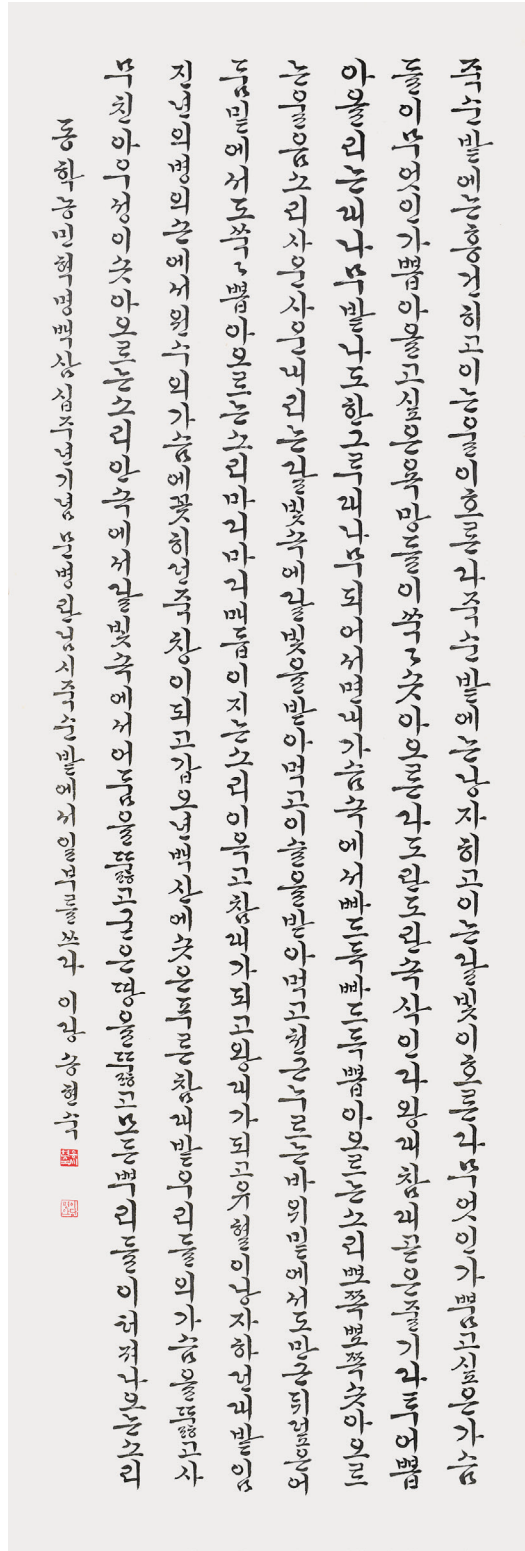
송하진 宋河珍 / 취석 翠石

1952년생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 • 정책학박사 • 「모악에 머물다」, 「느티나무는 힘이세다」 시집 • 성균서도회, 강암연목회 • 제14회 세계서예비엔날레 천인천시전, 동아시아전성매정전, 명사서예전 출품 • 제36, 37대 전주시장, 제34, 35대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35, 108동 1702호 / 010-2103-1313

문병란 시 <죽순밭에서> / 60×180cm

송현숙 宋賢淑 / 이당 怡堂

1948년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 및 운영위원, 이사 역임, 현)원로 • 대한민국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심사 및 운영위원, 이사 역임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역임 • 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 개인전 10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41길 21-1 / 010-3689-5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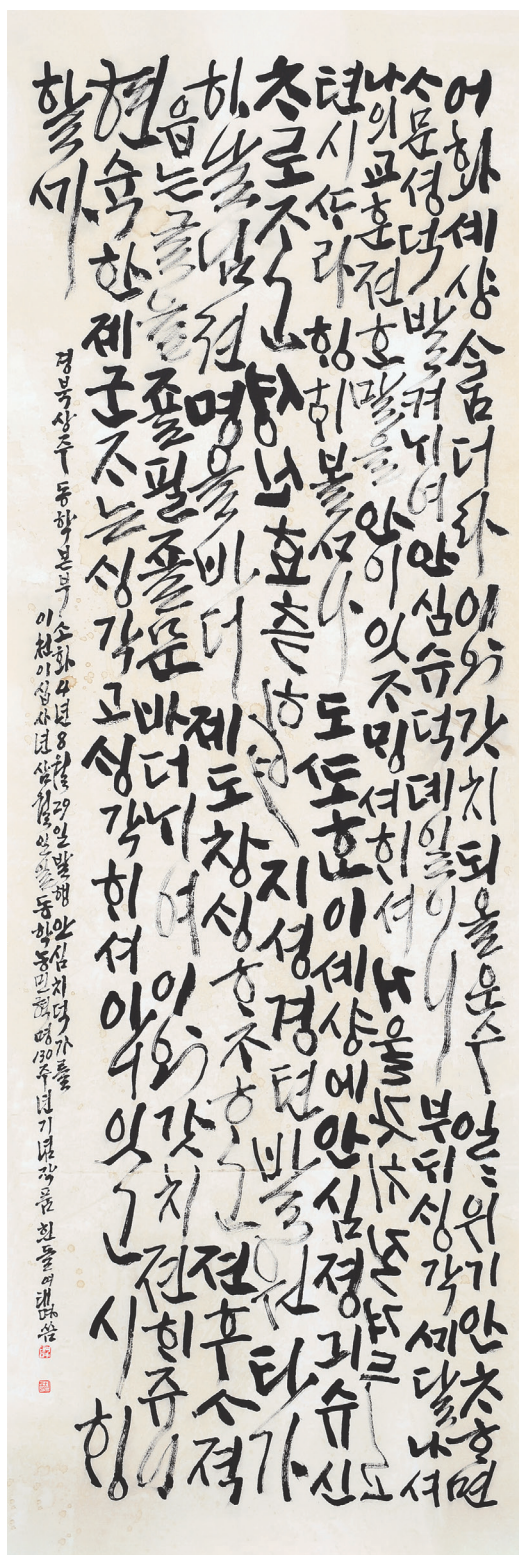


제폭구민 除暴救民 / 60×184cm

제폭구민을 중앙에 쓰고 부제로 전봉준 장군의 옥중 시를 주목으로, 양쪽에 써서 강한 투쟁정신을 정의를 위해 흘린 피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한글은 안도현 님의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을 녹두색 바탕의 글씨로 표현하여 녹두장군을 연상 시키고자 했다.

신지훈 辛知勳 / 우공 愚公

1951년생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이사 역임 • 한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이사장 역임 • 한국전각협회, 국제서예가협회, 한국서예가협회 이사 • 삼청시사(한시협회) 6,7대 회장 역임 • 개인전(전북도립미술관, 백악미술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3번길16, 601호 우공서예사랑 / 010-3007-0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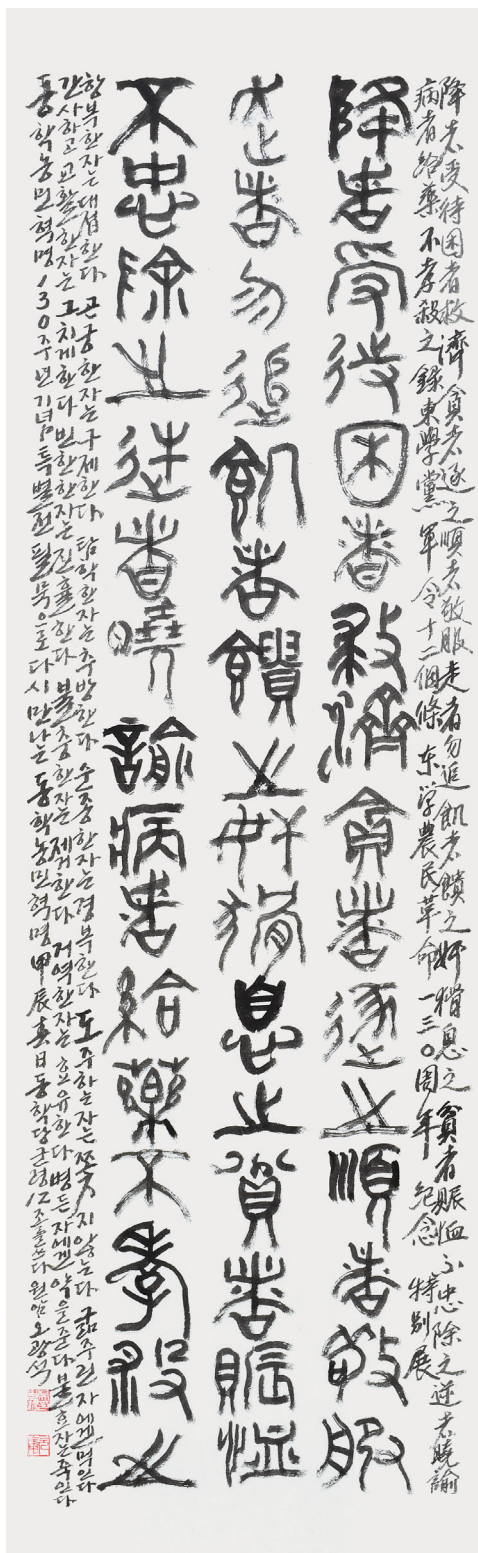


안심치덕가 安心致德歌 / 58×184cm

어화세상 사롬덜아 이와갓치 되올운수 일일위기 안추하면 사문성덕
밝혀니여 안심수덕 제일이니 부디생각 씨다라써 나의교훈 전훈말을
안이잇주 땡서히서 거울갓치 직려두고 천시짜라 행히불까 나도또흔
이세상에 안심정기 수신차로 자고성신 교칙하여 지성경천 발원타가
하늘님전 명을밧어 제도창생 하주하고 전후사적 업노글을 줄필줄문
밧어니여 이와갓치 전히주니 현숙흔 제군자는 생각고 생각히서
아니잇고 시행할가

여태명 余泰明 / 흰돌 白石

1956년생 /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서예학회 평생회원 •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초대회장, 명예회장 • 한국근현대서예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 조직위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11길 43 태명예술공간 /
010-6688-9940



동학당 군령12개조 東學黨 軍令 12個條 / 60×180cm

1. 降者受待 2. 困者救濟 3. 貪者逐之 4. 順者敬服
5. 走者勿追 6. 飢者饋之 7. 奸猾息之 8. 貧者賑恤
9. 不忠除之 10. 逆者曉諭 11. 病者給藥 12. 不孝殺之
1. 항복하는 자는 대접한다 2.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3. 탐학 한 자는 진흙한다 4.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복한다
5. 도주하는 자는 쫓지 않는다 6. 굶주린 자는 먹인다
7.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치게 한다 8. 빈한한 자는 진흙한다
9.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10.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
11. 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12. 불효자는 죽인다

오광석 吳光錫 / 원암 元庵

1957년생 /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우수상, 초대작가 • 한국문인화협회 전북지회장 역임, 현)이사 • 한국미술협회 IAA서예분과 이사 • 전라북도미술협회 부회장 • 개인전 7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경동로20, 114동 503호 / 010-5072-0363

용담유사-권학가 龍潭遺詞-勸學歌 / 46×1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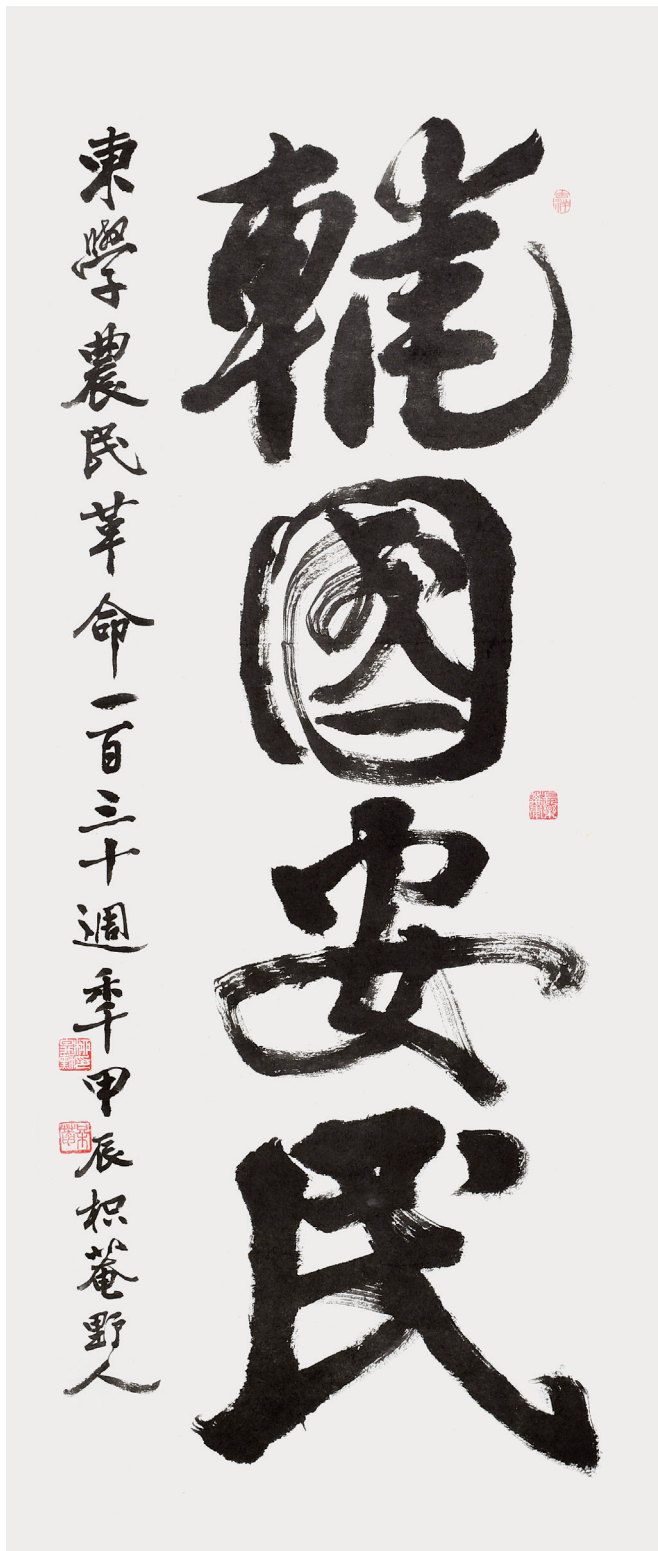
어화 세상 사람들이 얽려해서 하는 말을 자세히 생각하고 잊지 말고 지켜내어 정성으로 공경해서 하늘님만 생각하오. 가족에게 가르치고 영원히 잊지 말게 아동방 매년 괴질 사람들은 죽어나네. 나도 또한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진 사람 만날 때는 시운 변화 의논 하고 한평생 해야 할 일 생각이 통한다면 이 글 주고 결의해서 친구가 될 것이네.

어화 세상 사람들이 얽려해서 하는 말을 자세히 생각하오. 가족에게 가르치고 영원히 잊지 말게 아동방 매년 괴질 사람들은 죽어나네. 나도 또한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진 사람 만날 때는 시운 변화 의논 하고 한평생 해야 할 일 생각이 통한다면 이 글 주고 결의해서 친구가 될 것이네.

갑진년 대스하 부인 고은스나

유숙정 俞淑貞 / 고은 古隱

1963년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 및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역임, 현)감사 • 대한민국현대서예대전 초대작가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출품(2001~) • 금문으로 쓴 <명심보감> 출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골4길 15, 202동 901호 / 010-8620-1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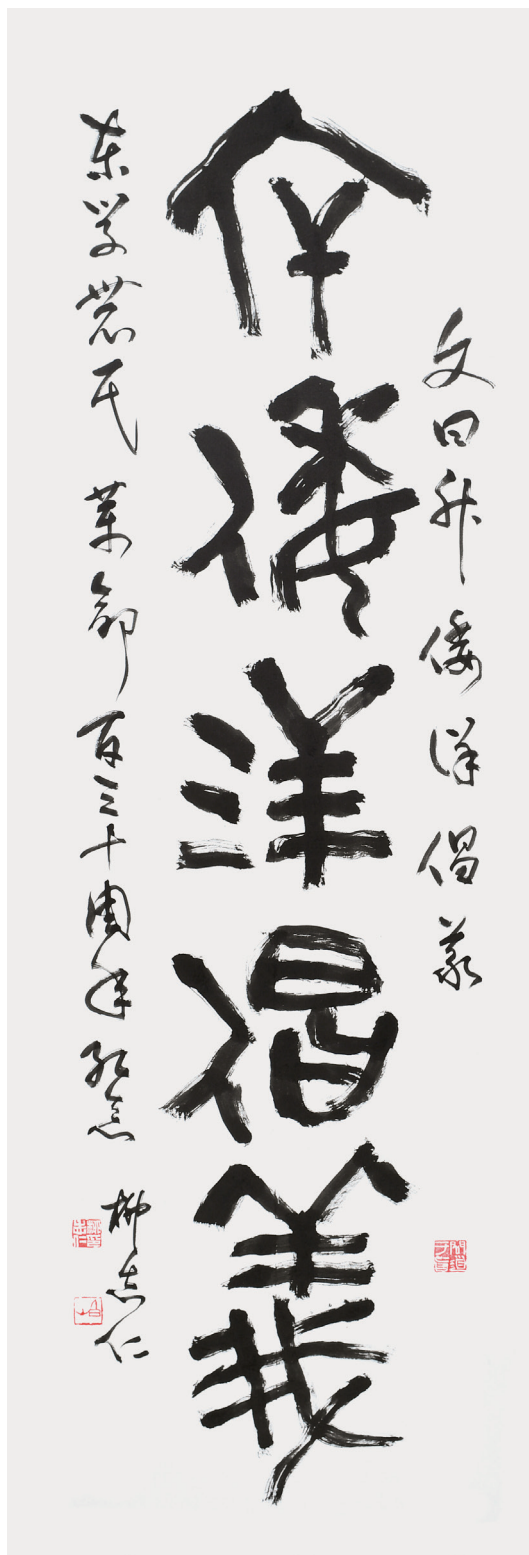


보국안민 輔國安民 / 60×140cm

나라의 힘을 돋우워 국민을 편안케 한다

유승훈 柳昇勳 / 지암 枳菴

1953년생 / 대한민국미술협회 서예부문 초대작가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출품 •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회장 역임
• 순창홍몽재 훈장 • 대한민국구국제1서원(남고서원 훈장)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지면 둔전2길 83 홍몽재 / 010-8626-9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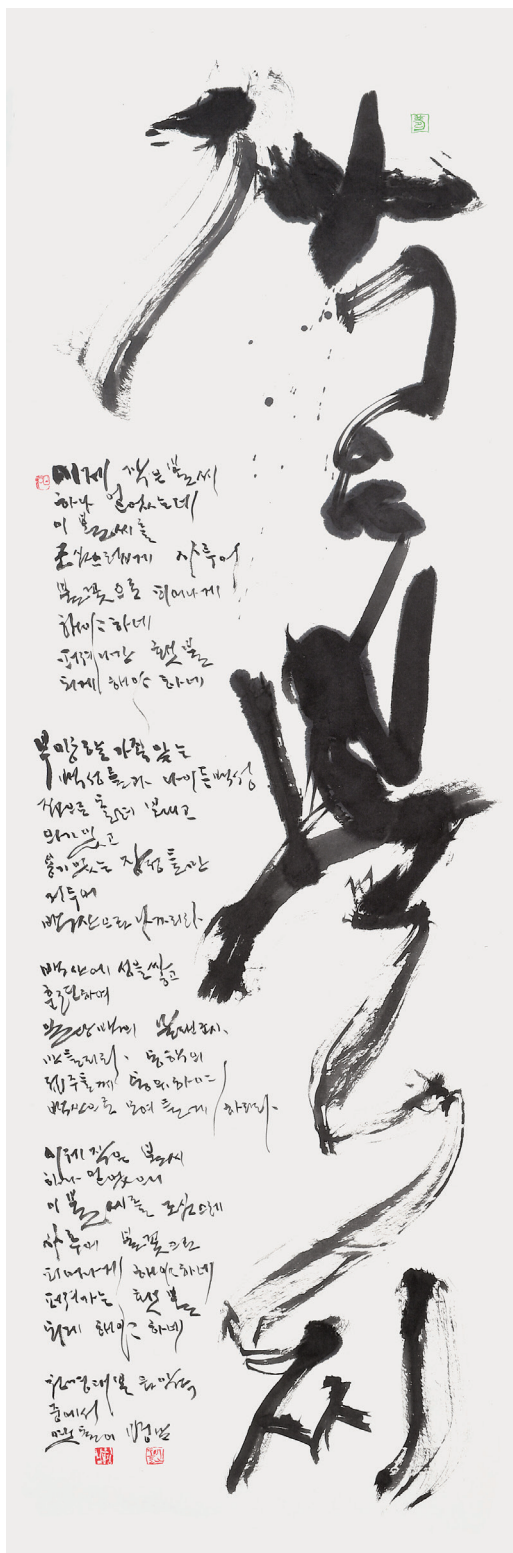


척왜양창의 斥倭洋倡義 / 60×180cm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여 창의를 한다

유지인 柳志仁 / 백산 白山

1955년생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운영, 심사 역임 • 한국서예연구회 고문 • 사)창암이삼만선생기념사업회 회장
• 한국서예박물관 외 35여 기관 작품소장 • 백산 유지인 작품집(2007, 서예문인화)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15,
102동 1303호 / 010-8641-1413



이제 작은 불씨 하나 얻었는데 / 60×186cm

이제 작은 불씨 하나 얻었는데 이 불씨를 조심스럽게 사루어 불꽃으로 피어나게 해야 하네 퍼져나간 햇불 되게 해야 하네 부양할 가족 있는 백성들과 나이 든 백성 집으로 돌려보내고 의기있고 용기 있는 장정들만 거두어 백산으로 나가리라 백산에 성을 쌓고 훈련하여 일당백의 날랜군사 만들리라 동학의 집주들께 통유하여 백산으로 모여들게 하리라 이제 작은 불씨 하나 얻었으니 이 불씨를 조심스레 사루어 불꽃으로 피어나게 해야 하네 퍼져가는 햇불 되게 해야 하네

이병남 李炳南 / 옛돌 露石

1958년 생 / 개인전 11회 •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졸 • 한국서예협회, 국제서예가협회, 강암연목회 이사 • NIJIRO筆鋒전 (이탈리아), 국제현대서예예술축제(중국광둥성예술원) 출품 • 〈한글과 타이포그래피전〉 서예박물관재개관 기념전(2016, 예술의전당) • 사)한국서예단체인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80, 상가503호 금석서실 / 010-7572-2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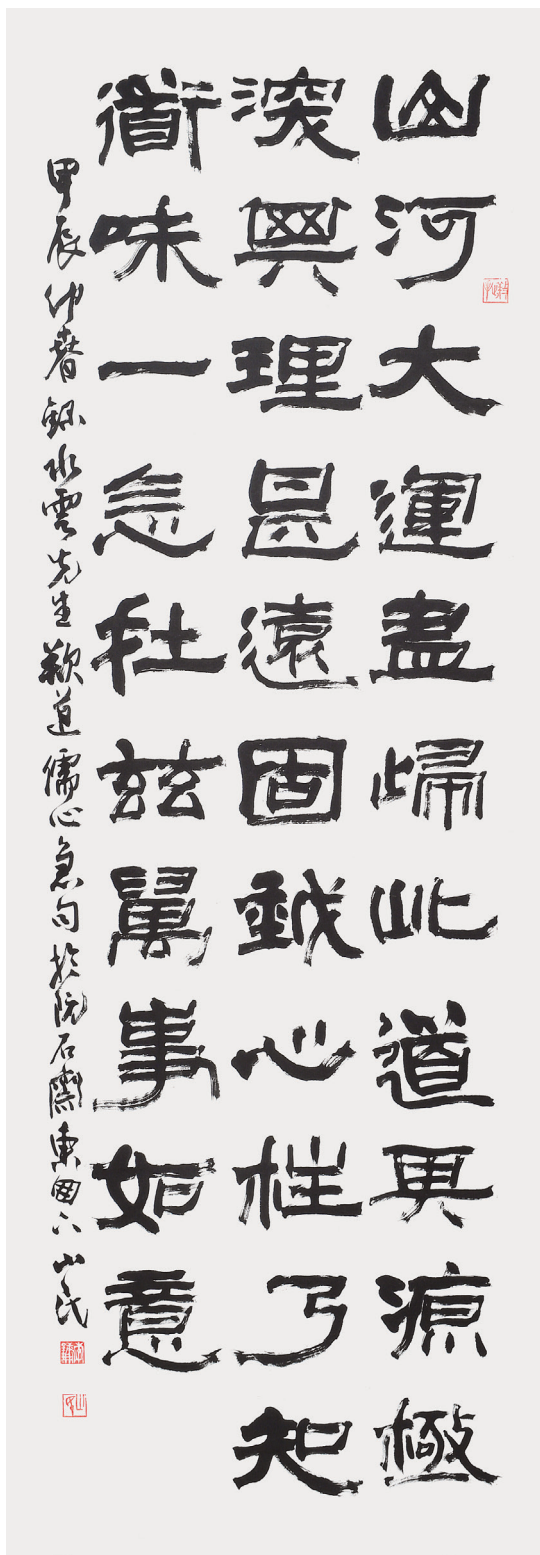


녹두장군 綠豆將軍 / 60×134cm

무엇 때문일까. 백 년 전에 죽은 그가
아니죽고 내 안에 살아 있는 것은
내 가슴에 내 땀속에 살아 숨 쉬고 맥박
처럼 뛰는 것은 그도 내 아버지의 아버지
처럼 서너 마지기 논배미로 평생을 살았던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일까
나와 같이 그 사람도 한때는 글줄이나
읽었던 서생이었기 때문일까 (하락)

이병도 李炳道 / 환빛

1967년생 / 개인전 7회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예학과 졸업(미술학 석사)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국제서예가협회, 강암연목회, 문자문명전, 이즘한글서예작가회 등 • 창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경남대학교 미술학과 강사역임 • 경남서충 부회장 • 창원서예작가협회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77, 성원1차 상가 501호 환빛서예학원 / 010-8503-3730



탄도유심금구 歎道儒心急句 / 60×180cm

山河大運 盡歸此道 其源極深 其理甚遠
固我心柱 乃知道味 一念在茲 萬事如意

온 세상, 지구의 변화가 동학의 진리로 돌아옵니다.
깊고 넓은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기둥처럼 굳게 세웁시다.

진리의 참맛을 즐기시다.

마음을 모으면 만사여의(萬事如意),

뜻하는 일이 마음 먹은대로 될 겁니다.

이응 李鏞 / 산민 山民

1948년생 / 개인전 19회(1980~2022)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 집행위원장 역임(1996~2008) • 저서:『한북금낭』
『금문,한시300수1,2』 등 17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2, 402호 산민서실/완석재 / 010-3650-4509

경천수심 敬天守心 / 60×136cm

篆曰敬天守心

此海夢全琿準先生之語也

東學農民軍有四大綱領：日不殺人

不殺物 日忠孝雙全 濟世安民

日逐滅倭夷 澄清聖道

日驅兵入京 盡滅權貴 是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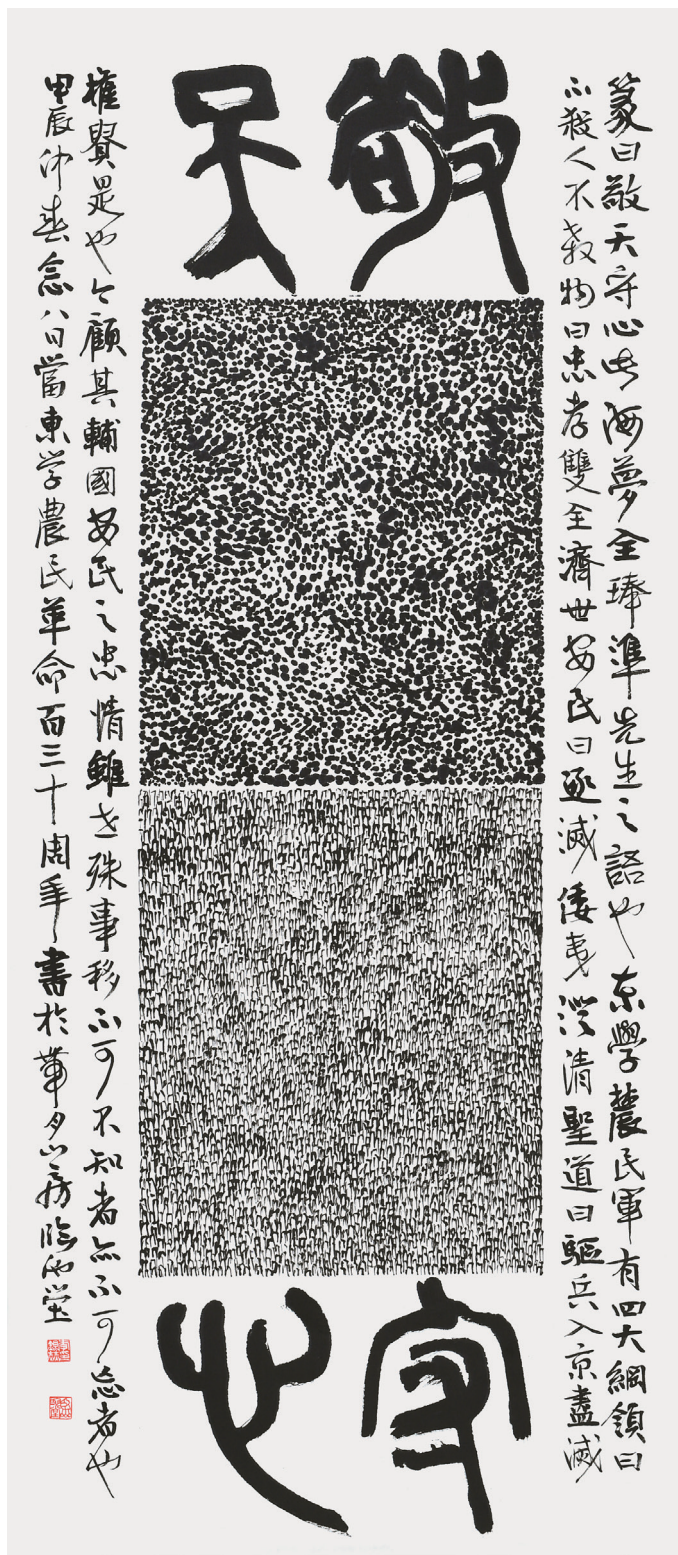
今顧其輔國安民之忠情 雖世殊事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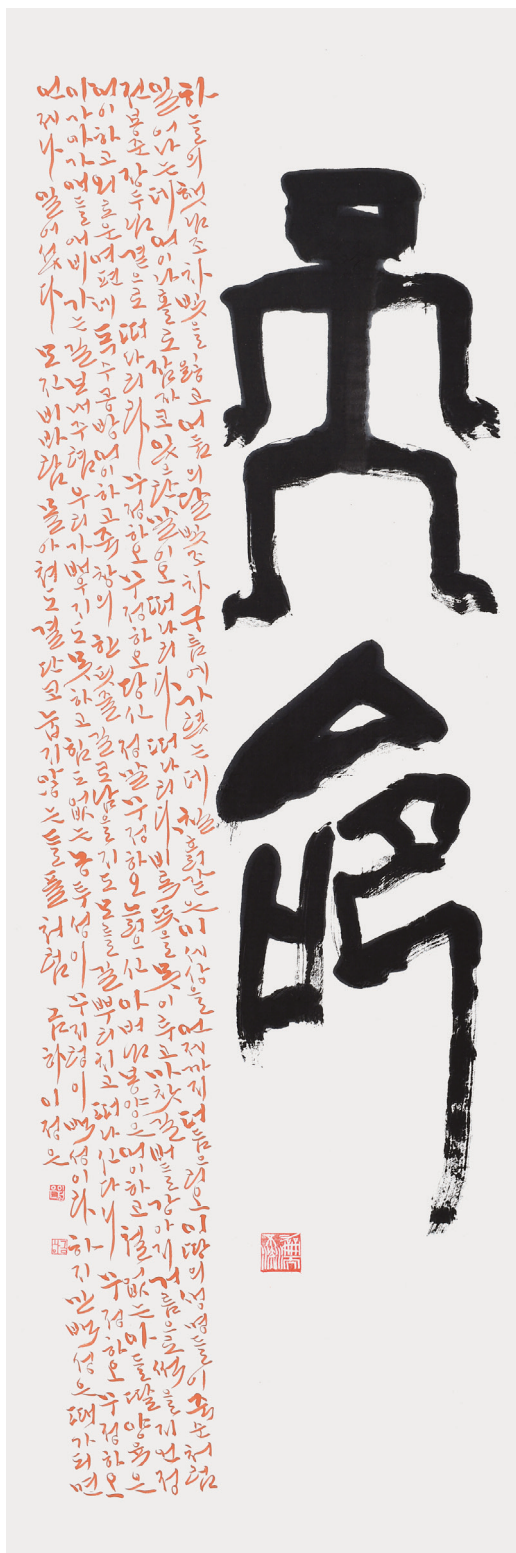
不可不知者 亦不可忘者也

전서는 ‘敬天守心’이다. 이것은 해몽전봉준 선생의 말이다. 동학농민군에게 4대 강령이 있으니 “첫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둘째, 충효가 둘 다 온전하고, 세상을 구제하여 백성을 편안케 한다. 셋째, 왜적을 몰아내어 거룩한 길을 맑게 한다. 넷째, 병사들을 물고 서움로 들어가서 권신과 귀족들을 죄다 멸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그들의 보국안민의 충정을 되돌아 보니, 비록 세상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했지만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잊어 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은혁 李銀赫 / 임지당 臨池堂

1963년생 / 문학박사(한문학) • 대한민국서예대전 대상(1990), 온버림 정종학술상 수상(2024) • 개인전6회, 단체전 300여 회 참여 • 보고 읽는 서예, 중국서예사, 백서유고 등 저역서 9권 • 전주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의 전담 교수 역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3, 2층 아트스페이스 / 010-9448-1189





음악극 天命 중 〈개벽의 때가 아는데〉 / 60×180cm

이정은 李貞垠 / 김하 錦河

1952년생 /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 심사 역임 • 한국서예협회 전북지회 이사, 운영, 심사 역임 • 현대서예문인화대전 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9 101동 1502호 / 010-7477-7213

녀역시이세상의주아시지년일은렐렐히생각하니더저인
 간빅천만수형코니니그뿐이오려고니니고성일세그등의흔
 가지도소업성공바이업셔휴등의품은회포일쇼일파하온
 후의이너신명도라보니이임의수십이오세상풍속도라
 보니여쳐쳐우여쳐라아셔라이너신명이바게다시업다
 나도또할아아부러지니온일을생각하니사랑사는온일이살아보면그편이고적
 은이편이하나하나고생고성형이있었네그중예한가지도이론것이업었었으니가슴에포
 마아한편이고형었나네나를한편을아보니이마사십이오세상을돌아보니이
 렐름나아니려름나아거각이사람아이를밖에나시업다 용담유사사조예가죽봉양

용담유사-교훈가 龍潭遺詞-敎訓歌 /
 60×132cm

임성곤 林成坤 / 죽봉 竹峯

1965년생 / 한국서가협회 청년분과위원장 역임 • 한국서가협회 전북지회장 역임 • 한국예술문화원 상임이사 • 아시안캘리그래피
 협회 이사 •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예 • 캘리그래피 및 김계교육문화회관 서예강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1길
 33-10 401호 한국먹글서예캘리그래피연구원 / 010-8640-8929



돌과 낫과 창과 / 55×1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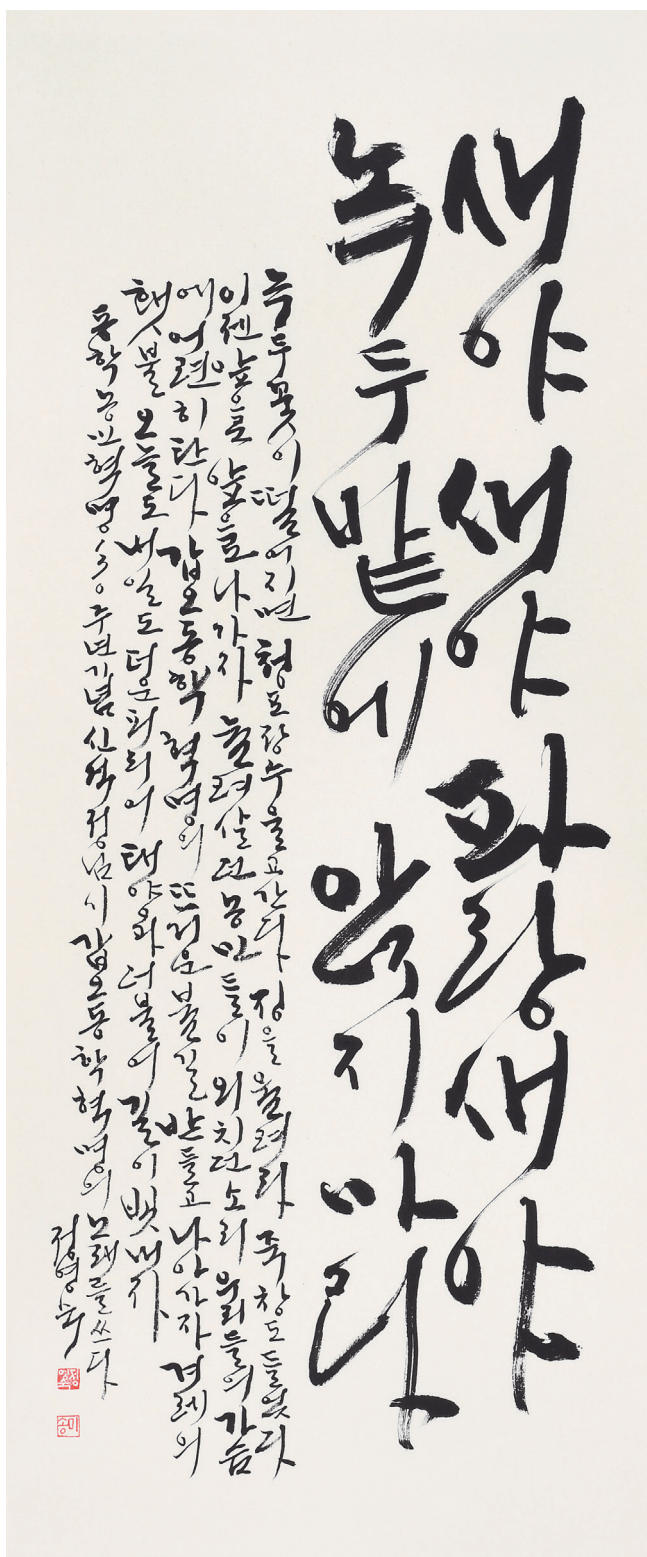
갑오농민에게 소중했던 것
 그것은 한술의 밥이었던가 아니다
 구차한 목숨이었던가 아니다
 다 빼앗기고 양반과 부호들에게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우리 농민들에게 소중했던 것
 그것은 돌이었다 낫이었다 창이었다
 돌은 낫을 갈아 창을 깎기 위해
 낫은 양반과 부호들의 머리를 베기
 위해 창은 외적의 무리를 무찌르기
 위해 소중했던 것이다.

정미숙 鄭美淑 / 매원 梅園

1960년 생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문인화 강사 역임 • 한국미술협회 문인화
 분과 기획부 위원장 •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미술과 출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4길 7-6 / 010-8640-2828

새야 새야 파랑새야 / 60×135cm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징을 울려라 죽창도 들었다
 이젠 앞으로 앞으로 나가자
 놀려 살던 농민들이 외치던 소리
 우리들의 가슴에 어렵히 탄다
 갑오동학혁명의 뜨거운 불길
 받들고 나아가자 겨레의 햇불
 오늘도 내일도 더운 피 되어
 태양과 더불어 길이 빛내자



정영숙 鄭英淑 / 미승 美松

1964년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이사, 심사위원, 운영위원 역임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 및 조직위원
 • 대한민국마한서예문화대전 대상, 초대작가, 심사위원 • 강암연묵회원 • 사)한국서예협회 전라북도지회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55, 106동 1603호 / 010-4650-1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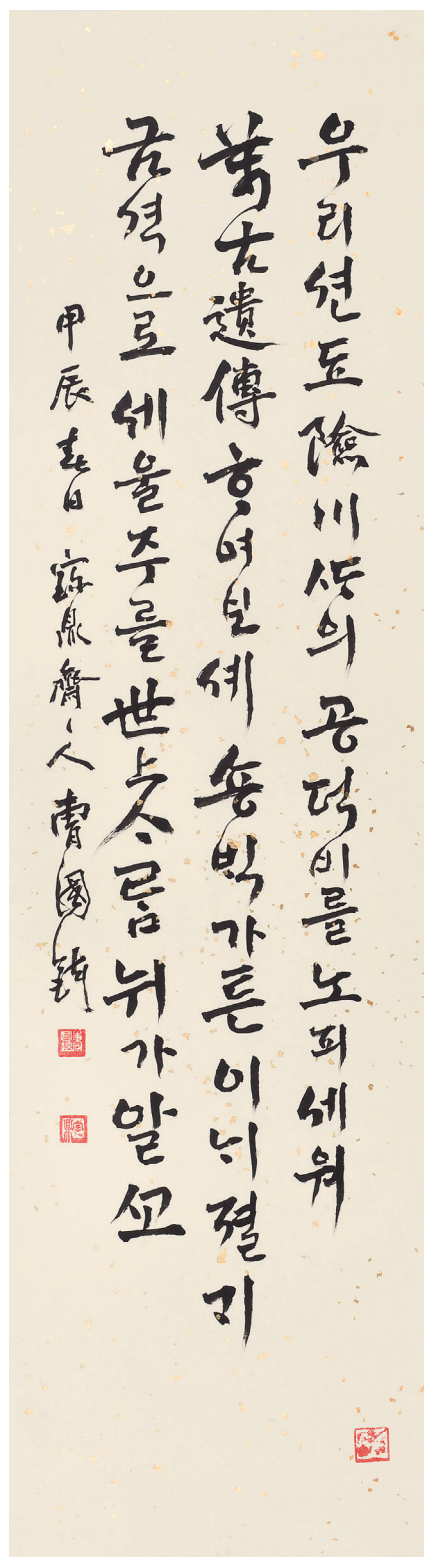
우금치의 노래

그날이었는데 몰라라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무엇이 생긴 것은
그날이었는데 몰라라
우리가 우리의 죽은 분위에
가시 먼 불로 피어
넘을 수 없는 무엇을 먼저 시작한 것은
옛적에는 관주인 사내들이 들어와
소환이 되었다는 죽은 귀넷길
화투 같은 동학군들이 죽어 살을 이루면
이곳이었는데 몰라라
우리가 우리의 아우룩에 넘을 수 없는
철조방을 치던 것은
이곳이었는데 몰라라
우리가 우리의 죽은 분위에 뿌리를 내려
넘을 수 없는 철조방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아, 그때였는지 몰라라
우리가 노예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아, 그때부터였는지 몰라라
우리가 우리놈에
빛나는 하늘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우근치여 휴전선이여 모든 철조방이여
우리들의 철조방은 우리들의 한이 땅
노예의 노래는 빛나는 하늘
진달래 붉은데 된 죽은 귀넷길
지금도 소리쳐 오는 한성은 우리 마음
아직도 피가 뜨거운 사내들은
죽은 채로 세파쟁이 빛선 노래를 낚는다
우리들의 세파쟁이 홀로 길에, 한이여
식각위에 두드러진 막아서는
우근치여 휴전선이여 모든 철조방이여
너를 낚는다
우리들의 죽은 분위에 뿌리를 내려
넘을 수 없는 너를 낚는다
김진경씨의 우근치의 노래를 쓰다
이강이십 사년 봄
시정당에서 미산 정현숙

김진경 시 <우금치의 노래> /
60×124cm

정현숙 鄭賢淑 / 미산 休山

1956년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출품 • 강암연묵회, 산민묵연회 회원 • 개인전 1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2길22, 109동 301호 / 010-3655-5764



응담유사-안심가 龍潭遺詞-安心歌 / 34×136cm

우리 선조(先祖) 험천(險川) 땅에 공덕비(功德碑) 높이 세워
만고유전(萬古遺傳) 하여보세. 송백(松柏) 같은 이내
절개(節概) 금석(金石)으로 세울 줄을 세상 사람 누가 알꼬.

조국현 曹國鉉 / 보정 寶鼎

1951년생 / 한국서예가협회 이사 • 고창한묵회 회장 역임 • 전라남북도명가초대전 출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09길 38, 612호 / 010-5414-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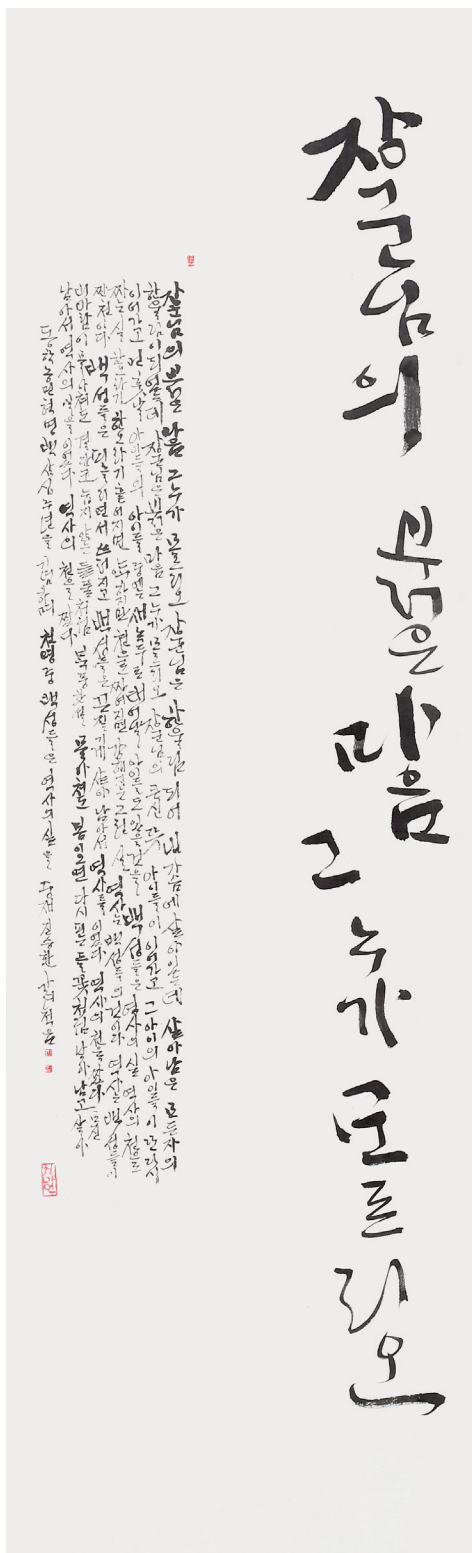


사인여천 事人如天 / 37×144cm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 동학교조 최수운 선생의 말씀

조수현 曹首鉉 / 현담 玄潭

1948년생 / 철학박사 •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교수 역임 • 한국서예학회 회장 역임 •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서예사연구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25길 12, 702동 701호 / 010-4653-6380



백성들은 역사의 실 / 35×1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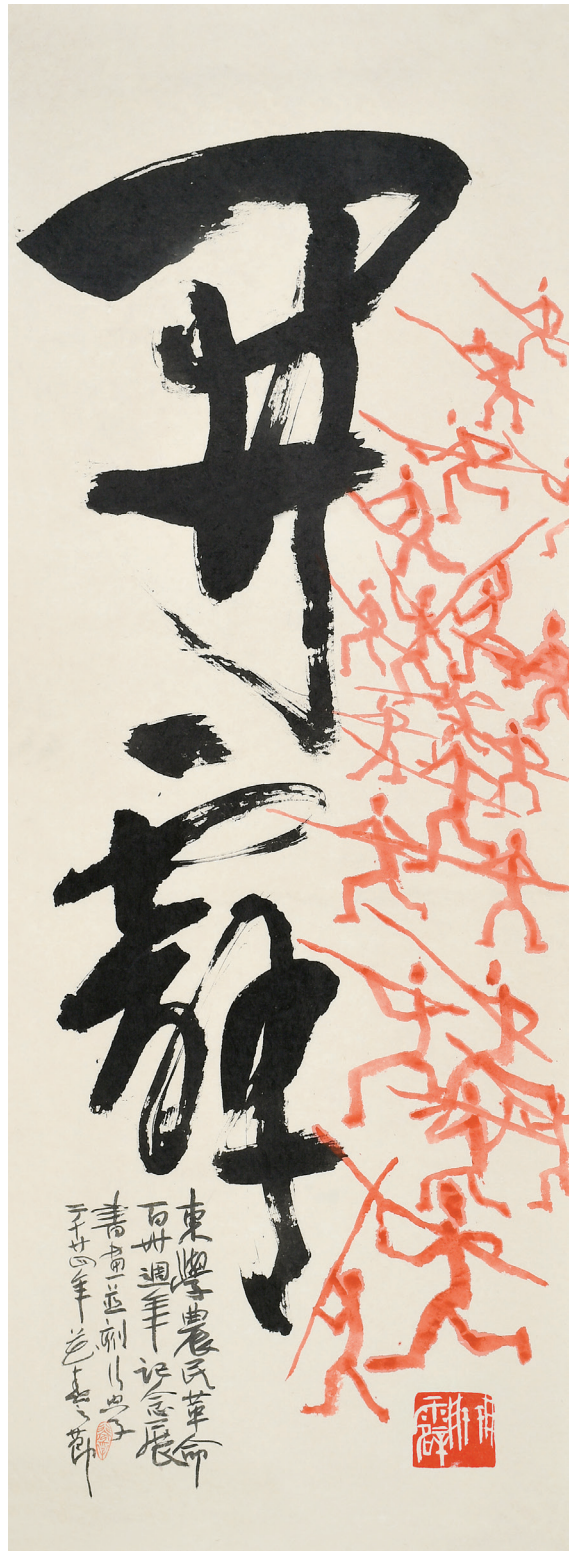
장군님의 붉은 마음 그 누가 모르리오. 장군님은 한울님 되어 내 가슴에 살아 있는데 살아남은 모든 자의 한울님이 되었는데 장군님의 붉은 마음 그 누가 모르리오.
장군님의 크신 뜻 아이들이 이어가고 그 아이의 아이들이 또다시 이어가고 먼 훗날 아이들의 아이들 그 중에는 새 녹두로 태어날 아이들도 있을 것을 백성들은 역사의 실, (중략) 모진 비바람 몰아쳐도 결단코 늙지 않는 들꽃처럼 북풍한설 몰아쳐도 봄이 오면 다시 피는 들꽃처럼 살아 남고 살아 남아서 역사를 이었다 역사의 천을 짰다.

진승환 陳昇煥 / 중재 中齋

1979년생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위원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공모전 초대작가 • 강암서예회호대회 초대작가 •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 진경여자고등학교 재직 • 익산미술협회 서예분과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18길 19-8, 108호 청가현 / 010-6651-0108

개벽 開闢 / 64×184cm

새로운 새를 열자! 130년 전 天地開闢을 해야 한다며
竹槍을 들고 일어난 동학 농민의 모습을 표현
하고자 인사동 구석 잔디 마당이 있는 恒心房 長의
뇌동이 깊었다. 오늘날 이 나라의 꼴은 어떤가!



진영근 陳永根 / 행공자 行空子

1958년생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그랑프리 수상(2021) • 榮根譚 完刻 心刻 榮根譚 出간(1998) • 독일 프랑크푸르트 초대전 (2005) • 한글폰트 6體 24種 開發 • 미치광이 六甲뿔기 《木石生花》전 등 개인전 20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19-8 진공재 갤러리 / 010-5261-0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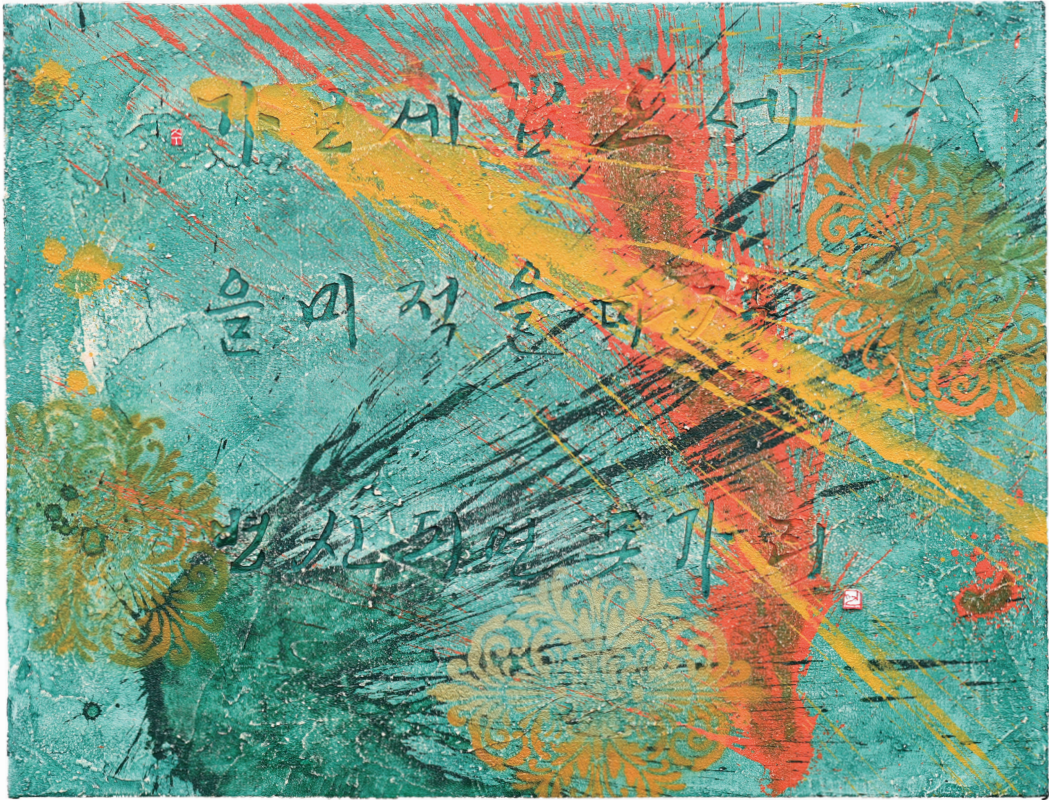


사라진 못 백성의 꿈 / 60×184cm

어허 어이, 어허 어이 슬프도다.
 사라진 못 백성의 꿈이여.
 애석토다 짓밟힌 개벽의 여명이여. 보국안민 척양척왜
 기치 들고 일어섰던 창의대장군 녹두 전봉준 압송되어
 가네. 공주 우금치 고개의 마지막 전투에서 수만 백성
 피 흘리고 스러져간 패전의 뒤끝 동지들을 눈물로 이별
 하고 밤길 더듬어 군사 모아 재거병할 기회 찾아
 헤매다가 믿던 부하 김경천의 밀고로 붙잡히니 눈도
 많이 내린 설달 둘째 날이었네.
 어허 어이, 어허 어이 슬프도다. 사라진 못 백성의 꿈이여.
 애석토다 짓밟힌 개벽의 여명이여.

최동명 崔東明 / 청람 淸嵐

1972년생 / 원광대학교 서예과 졸업 동대학원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 전라북도미술협회 서예분과장 • 선흔, 한청서맥, 연묵회, 진묵회, 서연회 • 최동명서예창작실 주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26 2층 최동명서예창작실 / 010-5342-0769



가보세 / 80×60cm

가보세 갑오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가보세 노래는 갑오년(甲午年)에 가야 할 때가 되면
가야지, 다음 해인 을미년(乙未年)까지 미적거리면
그 다음 해인 병신년(丙申年)을 만나, 영영 못 가고 일을
그르치고 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수일 崔洙日 / 현봉 玄峰

1957년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2001~202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김해비엔날레국제미술제(2019~2021, 윤슬미술관) • 개인전 10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동봉계길 15-3 又一邨 /
010-3676-8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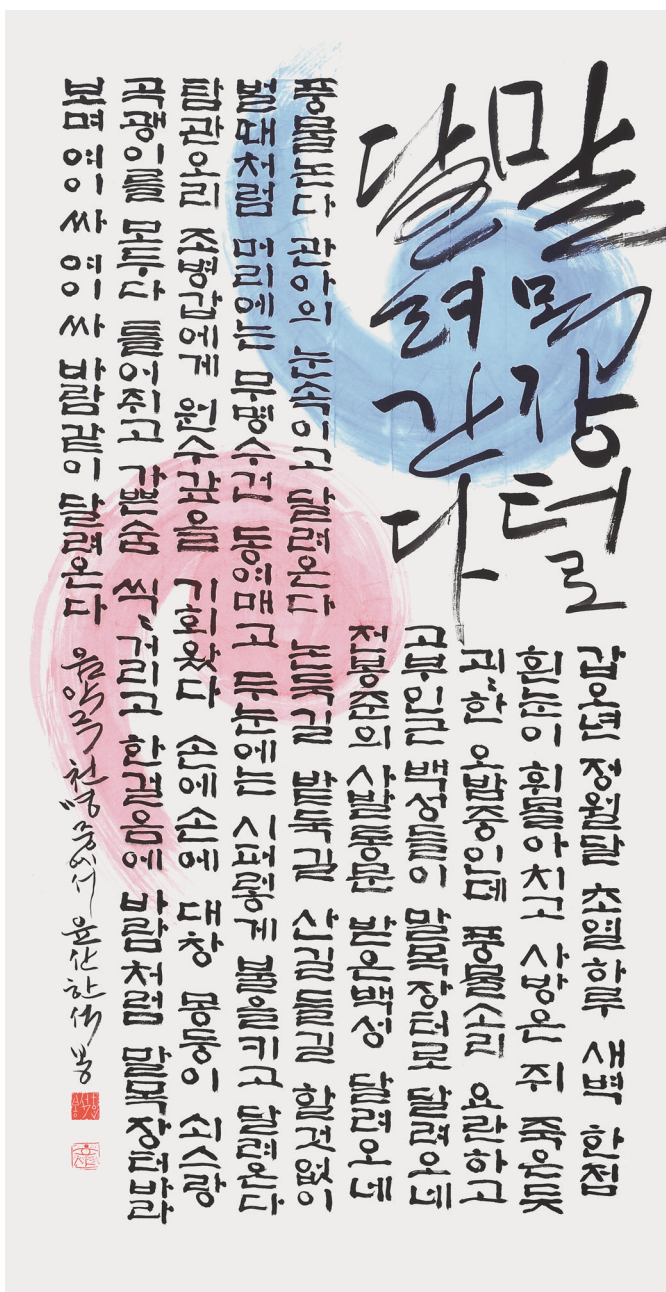


전봉준 절명시 全瑋準 絶命詩 / 60×120cm

時來天地皆同力 運去英雄不自謀
愛民正義我無失 愛國丹心誰有知
때가 오니 천지가 모두 힘을 같이 했건만
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도모할 수가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는 올바른 일뿐 나에게는 과실이
없나니 나라를 위한 한마음 그 누가 알리

최애순 崔愛順 / 우정 于庭

1954년생 / 개인전 3회, 단체전 다수 출품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 • 한국현대서예문인화 초대작가 • 원광대학교 미술대전 서예과 졸업 및 동양학대학원 석사 졸업 • 현)한국서예협회 전북익산지부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17길 16, 101동 1401호 / 010-9436-9533



말목장터로 달려간다 / 70×140cm

갑오년 정월달 초열 하루 새벽 한점 흰
눈이 휘몰아치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괴괴한 오밤중 인데 풍물 소리 요란하고
고부 인근 백성들이 말목장터로 달려
오네 (중략) 손에 손에 대창 몽둥이
쇠스랑 곡괭이를 모두 다 틀어쥐고 가쁜
숨 쉴쉴거리고 한결음에 바람처럼 말목
장터 바라보며 여이 싸 여이 싸 바람같이
달려온다

한석봉 韓石峰 / 윤산 輪山

1952년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호남미술대전 초대작가 •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이사, 운영,
심사위원 역임 • 한국서예협회 군산시 지부장 역임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송2길23 금호어울림아파트 101동 601호 /
010-6653-6359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이겨울 강양농민전쟁 전 백지를 찾아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더듬으며
나는 이시대의 기묘한 대조법을 본다
우직한 동학혁명군 위령탑은
일본군 강고총신 박정리가 세웠고
황토현 복두장군 기념관은 건두환이 세웠으니
광주항쟁 시인군 위령탑은 또
어떤자가 세울 것인가
생각하며 지나온 마을마다
터밭에 버려진 고추는 상기도 불고
조병갑이 물세번도 안 보노 혼란없는데
그럭 부안 총대 고향 농부사니들은 지금도
물세를 못내겠다고 아우성 치고
백마강가 신동엽씨비 옆에는
반공군주지사 기념비도 세웠구나
아. 아 기묘한 대조법이며 모진 갈등이며
곰나루 바깥부는 오래팔에 서서
강물모아 물을 싸지르고
싸들한 성곽을 화전을 씹으며
박물풍이 건네주는 막걸리 화전을
단순에 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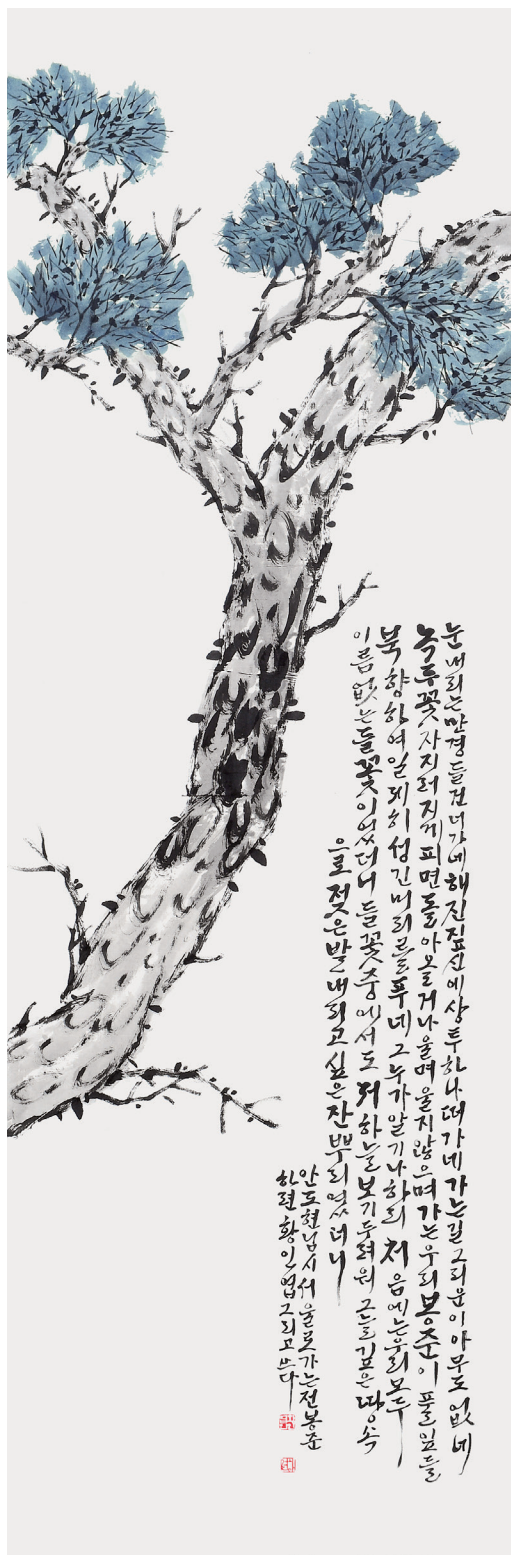
2024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며

정희성 남시를 쓰다 경인 한순옥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
65×140cm

한순옥 韓順玉 / 경인 耿仁

1962년생 / 개인전2회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 전국벽골미술대전초대작가, 심사, 운영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사방길99 / 010-8626-6775



서울로 가는 전봉준 / 60×180cm

눈 내리는 만경들 건너가네. 해진 짙신에 상투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그 누가 알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하던 잔뿌리였더니 (하락)

황인엽 黃仁葉 / 하련 夏蓮

1951년생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 대한민국문인화대전 초대작가 •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 진묵회, 강암 연묵회 회원 • 개인전 1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용운시기길 44-23 / 010-9461-6897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필묵으로 다시 만나는 동학

The date of issue 발행일 2024. 5. 10.
Director 총 괄 윤점용(집행위원장)
Planning 기 획 김선희
Editor 편 집 이수빈
Photographer 사 진 디자인폴림
Publisher 발행인 전북특별자치도 / 송하진(조직위원장)
Publishing office 발행처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2
모닝타워 4층 401호
Tel. 063-241-4508
Fax. 063-241-4502
Http://www.biennale.or.kr
Printer 인쇄인 이경석
Printing office 인쇄처 디자인폴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매봉 15길 8
Tel. 063-254-0056
Fax. 063-275-4515
E-mail : gyeongseok7005@hanmail.net
Price 정 가 10,000원



© WORLD SEOYE BIENNALE OF JEOLLABUK-DO

• 이 책에 실린 도판과 내용은 본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무단복제, 전재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 reserved. No copy an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may be made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organizing committee.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The defective goods are exchangeable.

